

# 2006년도 한문학 분야 연구 동향

김보경(서울대)

- 1. 들어가는 말
- 2. 연구 경향에 대한 개괄
  - 2.1. 단행본
  - 2.2. 자료·번역
  - 2.3. 학위논문
  - 2.4. 학술지 논문
- 3. 문제적 지표와 몇 가지 제안
  - 3.1. 문학의 외연과 확장
  - 3.2. 한국과 이웃의 교섭
  - 3.3. 고전과 현재의 소통
- 4. 나오는 말

## 1. 들어가는 말

본고는 2006년도 1년 간 한문학 분야에서 제출된 연구 성과를 개괄하고 그중에서 중요한 문제적 쟁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연구에 참고적 지표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성과를 검토하기에 앞서 몇 가지 짚어놓을 점들이 있다. 우선, '2006년도'에 대한 접근 태도이다. 한문학 연구사에서 2006년도는 연대기 상 1년이면서 또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 해는 韓國漢文學會가 창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처음에 '한국한문학연구회'로 시작한 이 학회는 한 세대를 거치면서 회원 700여 명을 둔 거대 학회로 성장했다. 양적 성장이 질적 발전과 반드시 비례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를 돌아볼 때 질적 수준에 있어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룩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한문학회는 2006년 특집 기획주제로 '한문학연구의 문화론적 방향'·'한국한문학과 문화콘텐츠의 만남'(37집), '한국 한문학 외연의 확장'(38집)을 내걸었다. 이것은 한 세대를 겪은 그리고 21세기도 웬만큼 건너온 지금, 한문학 연구가 적극적으로 자기의 변화를 피하고 본격적으로 새 시대의 요구에 응해야 할 '신 개척시대'<sup>1)</sup>에 이르렀음을 언명한 것이다.

이러한 시기적 지점을 놓고 볼 때, 2006년도 연구 성과를 검토하는 것은 필자 개인에게도 큰 짐이지만 연구 성과를 제출한 연구자들에게도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 한 해의 연구 성과를 어떠한 도달점을 보여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며, 온당한 일도 아니다. 이 해 역시 한문학 연구사의 긴 도정위에서 있으며, 앞으로도 한문학 연구는 수많은 굴곡과 다양한 파장을 겪으면서 개척의 과제를 수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도달점은 아니라 해도, 이 해의 연구 성과는 한문학 연구의 거대한 축적에 뿌리

1) 이우성, 「축사」, 『한국한문학연구』37(한국한문학회, 2006. 6), 10면. 맨 처음 초기를 '발굴, 발견시대', 두 번째를 '연구, 축적시대', 세 번째 지금 이 시기를 '신 개척시대'로 명명했다.

박고 있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수행된 것이므로, 이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그 속에서 한문학 연구가 걸어왔고 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연구 성과를 검토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본고 뒤에 첨부한 참고문헌의 규모에서도 드러나듯이 2006년도에 제출된 연구 성과는 그 영역이 매우 넓고 수도 대단히 많다. 이것은 이 한 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문학 영역 및 연구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 통상적인 현상이다. 이 넓고 많은 연구 성과를 적절하게 갈라내어 요령 있게 살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다른 고전문학 분야처럼 갈래나 시대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 학술지 수록 논문만 추려서 정밀하게 살펴보는 것은 그 작업만으로도 버겁거니와 그렇게 할 때 연구 동향의 전체적인 모습을 놓칠 우려가 있다. 그동안 한문학 연구 동향 보고서 발표 형식을 기준으로 해서 연구 성과를 살피고 이중에서 주목되는 몇 가지 쟁점을 세워 검토하는 방식을 취해 왔던 것은, 창의성의 부족이라기보다 그것이 가장 적의한 방식임을 경험적으로 터득한 결과이다.

본고에서도 기본적으로 선행 보고서에서 취한 방식을 따르기로 한다. 우선, 단행본, 자료·번역,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등으로 나누어 그 대체적인 상황을 검토한 뒤, 그중에서 공동으로 고민해 봄직한 중요한 문제적 지표를 가려내어 제시하고, 앞으로 연구의 방향에 몇 가지 전망 또는 제안을 내놓기로 하겠다. 단, 필자의 개인적인 관심과 시각에 따라 편향되게 전달·해석하는 잘못을 줄이기 위해서 연구 성과는 가능한 한 충실하게 보고하기로 하겠다. 참고문헌 역시 발표 형식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수록하되, 특집 또는 기획주제의 경우 그 의미가 명료하게 부각될 수 있도록 관련 논문을 그 주제 아래 한데 모아놓기로 하겠다.

## 2. 연구 경향에 대한 개괄

### 2.1. 단행본

2006년도에 출간된 단행본은 성격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해서 펴낸 것으로 『최립 산문의 예술경계』(김우정),<sup>2)</sup> 『조선후기 한문산문의 이론과 비평』(송혁기),<sup>3)</sup> 『이규보의 불교인식과 시』(주호찬),<sup>4)</sup> 『조선후기 경화사족의 불교인식과 불교문학』(유호선)<sup>5)</sup> 등이 있다.<sup>6)</sup> 『가정 이곡의 한시 연구』(황재국),<sup>7)</sup> 『한국 傳文學 연구』(유권석)<sup>8)</sup>는 학위논문 제출 시점에서 한참 경과한 뒤에 나온 것인데, 큰 틀은 역시 학위논문을 따르고 있다. 이상은 학위논문 제출 연도의 연구 성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한다. 2006년도 학위논문을 출간한 것은 학위논문 부분에서 살피기로 하겠다.

2) 김우정, 「간이 최립 산문 연구」(단국대 박사학위논문, 2005). 단행본에는 보론적 성격을 지닌 「15세기 記序文의 성격과 의의-乘崖·四佳·估畢齋를 중심으로」·월정 윤근수 산문의 성격」등 논문 2편이 덧붙여 있다.

3) 송혁기, 「17세기 말~18세기 초 산문이론의 전개양상」(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5). 단행본의 1부는 박사학위논문, 2부는 「작법·수사 논의의 심화와 산문비평의 실제」, 3부는 「몽에 남극관의 학문과 산문비평·조공섭의 김택영 제가비판과 그 비평사적 의의」등 2편의 논문을 보론 형태로 덧붙인 것이다.

4) 주호찬, 「이규보 불교관련시의 주제 연구」(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5). 단행본의 1부는 박사학위논문, 2부는 1부의 내용을 근거로 이규보 시에 투영된 불교인식을 살폈다.

5) 유호선,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경화사족의 불교수용과 그 시적 형상화-김창흡·최창대·이덕수·이하곤·조귀명을 중심으로」(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3). 단행본은 박사학위논문에 조귀명 관련 논문을 추가했다.

6) 이종 송혁기·유호선의 논문은 해당 연도 연구논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7) 황재국, 「이곡 문학 연구」(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85). 단행본은 이곡의 시세계를 중점적으로 고찰한 것으로 「목은연구회 연구총서」로 간행되었다.

8) 유권석, 「임병양각인 인물전의 비극성 연구-김덕령·임경업·이순신의 전을 중심으로」(우석대 박사학위논문, 1997). 박사학위논문에서 5편의 후속 논문을 추가했다.

다음은 연구자가 자신의 관심 주제를 심화·확대해서 펴낸 학술서의 경우이다. 먼저 고려시대 문학 연구서로, 한시를 비롯해 고려 문학에 대한 연구를 모은 『고려문학산고』(김경수), ‘東國四詠’이라는 작품군에 주목한 『동국사영 연구』(성범중), 禪詩를 문학적 관점으로 접근한 『고려말 悟道頌 연구』(주호찬), 사대부 문인들의 불교시와 고승들의 저작물을 포섭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불교 한문학을 조명한 『여말선초 한문학의 동향과 불교 한문학의 진폭』(임종욱) 등이 있다. 예년에 비해 고려시대 연구 성과가 다양하게 나온 편이다.

이에 대해 문학사의 큰 흐름을 의식하며 수행된 연구로 우선 『실학시대의 사상과 문학』(이동환)이 주목된다. 저자는 ‘문학사’와 ‘사상사’를 한 가지 일로 보고, ‘고전시대·도학시대·실학시대’로 나누어 두 분야에서 작동하는 문제를 집요하게 탐구해 왔다. 이 책은 그중 ‘실학시대’ 편이다. 표면적인 구성은 개별 논문들의 집합이지만, 그 내면의 체계는 문학사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 하에서 논리적 통합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 한시의 人生 理想』(유호진) 또한 문학사를 정신사와 관련하여 다루고 있다. 한시의 궁극적 의미를 정신적 지향 내지 인격적 측면에 두고, 고려 후기 작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그 한시의 예술성과 시인들의 인생 이상을 조명했다. 『우리 고승들의 선시세계』(임종욱)는 선시의 발생과 변용을 정리하고,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고승들의 선시세계를 조명한 책이다. 불교문학 연구가 일천한 현실에서 선시와 문학적 관련 양상을 통시대적으로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여러 연구자들의 개별 논문을 특정 주제 아래 집성한(또는 특정 주제의 기획 하에 개별 논문을 집성한) 것을 보자. 《연행록연구총서》(조규익 외)는 그간 발표된 연행록 관련 논문들을 각 분야에 걸쳐 망라한 것이고, 『우리 한문학사의 해외체험』(이혜순 외)은 해외체험의 다양한 문학사적 역할과 의의를 구명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열하일기의 재발견』(박기석 외)은 회갑기념 논문집인데, 현대인들이 쉽게 『열하일기』에 다가갈 수 있는 책을 만들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학술대회와 성과를 모은 것을 보면, 『박지원·박제가 새로운 길을 찾다』는 박지원·박제가 서거 2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18세기 조선, 새로운 문명기획’에서 발표되었던 논문들을 엮은 것이고, 『우언의 인문학적 위상과 현대적 활용』(한국우언문학회)는 제1회 동아우언국제회의에서 발표된 논문과 학문적 견해를 바탕으로 펴낸 것이다.

지역 공간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에 집중적인 관심을 둔 연구도 다수 나왔다. ‘남명학 교양총서’(경상대 남명학 연구소)는 ‘알기 쉬운 남명학’을 표방하고 있는데, 2005년도 『나의 남명학 읽기』(최석기)를 시작으로, 2006년도에 『남명의 인간관계』(윤호진), 『남명의 한시선』(허권수), 『남명의 산문선』(허권수), 『남명과 지리산』(최석기), 『남명문학의 현장』(정우락) 등 총 6권이 나왔다. 『호남 한시의 공간과 형상』(박명희), 『강원 한시의 이해』(김풍기) 역시 지역의 공간과 시에 대한 특수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준다.

한시와 산문 텍스트를 읽고 감상하는 법에 관련된 저서로 『우리 한시 살려 읽기』(송준호), 『한시의 세계』(심경호), 『연암을 읽는다』(박희병)가 주목되며, 이 밖에 『조선의 문화공간』1~4(이종묵), 『간찰-선비의 마음을 읽다』(심경호), 『거문고 줄 꽃아놓고 옛사람의 사립』(이승수) 등도 흥미롭게 읽힌다.

## 2.2. 자료·번역

번역의 경우, 새 자료 또는 의미 있는 저작이 되 미처 번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 있고, 이미 正典으로 확립되거나 잘 알려진 고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있다.

門中에서 펴낸 번역서들은 대부분 전자에 속한다. 2006년도에 간행된 번역서 중에서 문중에서 내놓은 것들이 적지 않다. 그중에는 『국역 잠와유고』(이강로 역), 『표은선생유집』(성백효 역), 『입암일고』(이우성 해제) 등과 같이 전문 번역가나 학자들이 번역 또는 해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중 『입암일고』에 새로 추가된 遺著 중 燕京行錄은 학계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家傳 문집들 중에 아직 세상에

소개조차 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번역·간행은 각 문종의 재정적인 조건과 노력에 기대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체계적인 경제적 지원 및 학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된다.

전공자가 번역에 참여하는 형태는 학술진흥재단 프로젝트팀, 연구소, 讀書 등 팀 단위로 수행되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그 성과로는, 17세기 문집 가운데 여성에 관한 기록들을 번역한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4(김경미 외), 계미사행(1763~1864)의 제술관·서기의 사행 관련 기록을 역주한 『조선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김경숙)·『와신상담의 마음으로 일본을 기록하다』(박재급)·『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김보경)·『부사산 비파호를 날 듯이 건너』(홍학희), 홍길주의 삼부작 문집 전체를 번역한 『峴首甲藁』·『縹簞乙幟』·『沆瀣丙函』(박무영 외), 홍길주 문집 중 비망록을 번역한 『19세기 조선지식인의 생각창고』(정민 외) 등이 있다. 그리고 『담원문록』(정양완)과 『변영만전집』(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등, 서울의 한문학 또는 문장대가로 쌍벽을 이루었던 정인보와 변영만의 문집이 비슷한 시기에 역주되어 나온 것도 눈길을 끈다.

시화 또는 고전비평 자료를 역주한 것 중에 『三溟詩話』(민족문화연구소 한문분과)는, 姜浚欽이라는, 문학사에 등재되지 않은 인물의 친필 초고 유일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방시한집』(윤송렬)은 총 65칙으로 주로 당대의 이름 없는 시인들을 중심으로 꾸며져 있다. 『한국고전비평론 권1-조선중기』(조남권), 『고전비평자료유편-작가론』(윤호진) 등 고전비평 연구에 긴요한 자료들도 역주되었다.

번역과 주석, 교감을 아우른 것으로는, 이본을 대조해서 번역하고 원문을 수록하고 이본대비표를 붙인 『어우야담』(신익철 외)과 상세한 교감과 주석, 인명록·경유지 일람표·판본 대교표 등을 갖춘 『최부 표해록 역주』(박원호 외, 역사학 전공)가 주목된다. 이외에 『불씨잡변』(이기훈), 『김시습 조동오위요해의 역주 연구』(최귀목) 등 다수의 번역 성과가 제출되었다.

그 밖에 작품을 선별하여 소개·번역하거나 대중들이 접근하기 쉽게 풀어 쓴 경우를 보면, 고려중기 한시 가운데 주요 시화에서 거론된 작품을 추려서 번역과 함께 평설을 붙인 『옛 문인들의 붓 끝에 오르내린 고려시2-고려중기:무신집권기편』(김동욱), 우리 고전산문의 정수를 가려 뽑은 『아침은 언제 오는가-이규구 산문선』(정우봉)과 『작은 것의 아름다움-남공철 산문선』(안순태), 그리고 시선집으로 『말뚝구슬-유금시집』(박희병)·『길 위의 노래-김시습 선집』(정길수)·『욕심을 잊으면 새들의 친구가 되네-이규보 선집』(김하라)·『우주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홍대용 선집』(김아리)·『개구리 울음소리-장유 선집』(최지녀)·『풀이 되고 나무가 되고 강물이 되어-신흙 선집』(김수진) 등이 있다.

### 2.3. 학위논문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2006년도에 제출된 학위논문은 박사 20여 편, 석사 80편 가량(교육대학원 포함) 된다.

먼저 박사학위논문을 보자. 한시를 중심으로 고찰한 논문으로는, 이안눌의 작품 경향을 특별한 생애 체험을 위주로 범주화하여 그 특징을 살피고 조선중기 문학사에서의 위상을 정립한 「동악 이안눌 시문학 연구」(배주연), 주제 표출 방식과 작시 태도 및 문예미를 고찰함으로써 매천 시세계를 재조명한 매천 황현의 시문학 연구(황수정), 난설헌 한시의 새로운 이해에 목표를 두고 시세계를 재분석하여 작가의 의식을 살피고 표현 미학을 규명한 허난설헌 한시의 미학(한성금), 穆陵盛世의 중요한 문장가이면서도 선행 연구가 소략했던 조찬한의 시문학을 고구하여 시문학적 위상을 가늠한 「玄洲 趙纘韓의 시문학 연구」(김희자), 구한말 艮齋의 문인이었던 유종선의 학문경향과 도학시의 세계를 고찰한 「현곡 유종선의 도학시 연구」(나종선) 등이 있다.

한문산문을 중심으로 한 논문을 보면, 이덕무의 초기 산문을 대상으로 공안과 수용 양상을 비평이론과

창작실천의 두 측면에서 살피되 인식론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 이덕무 초기 산문의 공안과 수용양상 연구(권정원), 『어우집』에서 산문론을 도출하여 그 산문론이 『어우집』의 정통 한문과 『어우야담』의 이야기 서사 속에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살핀 「어우 유몽인의 산문론과 산문의 서술방식 연구」(김영미), 송시열 산문에 나타난 문예성을 해명하는 데 집중하여 그를 17세기 산문대가의 한 사람으로 재인식하고자 한 「우암 송시열 산문의 일연구」(정경훈), 홍길주 문학의 정수를 산문에 있다고 보고 3종의 문집과 기타 저술을 포괄하여 그 산문세계를 규명한 항해 홍길주 산문 연구(최식) 등이 있다.

작가군이나 집단에 대한 관심을 보여 준 논문에는, 16세기라는 한정된 시기에 독특한 일군의 성리학자에 의해 창출된 문학성향을 ‘遺逸文學’으로 규정하여 그 성격과 의의를 고찰한 16세기 유일문학 연구-출처의 식과 현실대응을 중심으로 (강정화), 백광훈의 문학적 배경과 교유시를 통해 시세계를 고구하고 당대 詩風地圖를 추론한 옥봉 백광훈의 교유와 시문학 연구 (박영관), 매천 문인으로 구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漢詩人 집단을 ‘梅泉詩派’로 명명하고 이들의 구체적인 실상을 연구한 매천시파 연구 (김정환), 조선후기 소론계 문인의 문학론 연구 (김영주, 출간),<sup>9)</sup> 癸未使行的 통신사 문학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계미(1763) 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구지현, 출간) 등이 있다.

한편, 특정 문체나 양식을 대상으로 한 논문으로는, 詞文學의 문학적 특질, 영향과 의의 등을 고찰하여 한국문학사에서 詞의 위상을 수립한 한국 詞文學 연구(이승매, 출간)를 비롯하여 표문의 설득 수단 연구-『고려사』 소재 외교 표문을 중심으로 (송병우), 한국 記夢詩의 전개양상 연구-몽중작을 중심으로 (홍순래), 한국의 論書詩 연구(김광욱), 「18세기 서예론 연구-이광사·강세황·김상숙을 중심으로 (최경춘) 등이 있다.

이상 박사학위논문은 한시와 한문산문, 개별 작가와 문학집단에 대한 연구가 고루 이루어지고, 특정 문체·양식을 다루거나 비교문학적 접근 방법을 취한 연구도 나와서, 전체적으로 연구의 균형화·다변화 현상이 드러난다. 다만, 한문산문 연구는 비평론이나 인식론적 문제, 미학적 등 관심 주제나 문제의식이 깊어지고 구체화된 양상을 보이는 데 비해, 한시 연구는 전통적인 서술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 또, 어떤 문학성향·문학집단, 특정 양식을 다룬 연구 중에는 개념의 타당성이나 접근 방법의 정합성에서 학계의 검토가 더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

석사학위논문은 개별 작가론이나 작품론이 위주가 되고 있다. 대체로 선행의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 문학의 성격을 면밀히 규명하거나 총체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시대적으로는 17, 18세기에 편중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첨부한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중에서 그동안 학계에 소개되지 않았거나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작품들을 연구한 예들을 소개하면, 李廷龜의 임진왜란의 피란체험을 기록한 필기(안나미), 이정구의 장자인 李明漢의 한시(조양원), 丁時翰의 遊記 <산중일기>(오주학), 鄭澈의 습유 한시(이경성), 崔鳴吉이 瀋陽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쓴 시를 모은 『北扉酬唱錄』(이정원) 등을 연구한 논문이 있다.

## 2.4. 학술지 논문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은 본고의 참고문헌에 수록한 것만도 400여 편이나 된다. 이를 일일이 검토할 겨를이 없으므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언급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근래 각 학회들이 특집 혹은 기획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그 논문들을 학술지에 수록하는 것이 추세인데, 2006년도에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편의를 위해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0)</sup>

9) 단행본 『조선후기 한문비평 연구』는 조선후기 한문 비평에 나타난 양상을 소론계 중심으로 개관한 것이다. 1부는 박사학위논문 일부와 미발표 논문, 2·3부는 그간 발표했던 문학론과 수사론, 조선후기 한문에 나타나는 특징에 관한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0) 전체적인 동향을 보여 주기 위해 한문학 외에 역사학·고문서 등 인접 분야 학술지의 기획주제도 함께 정리했다.

학술지명	특집·기획주제명
『고전문학연구』29	한국문학사에 있어서 소수집단 문학의 존재와 위상
『국문학연구』14	한국문학과 일상적 삶(Ⅱ~Ⅲ)
『국학연구』9	영·남 사립의 학문과 실천의식 비교연구
『대동문화연구』55	동아시아 중세사회의 금석문 / 근대문명과 산강 변영만
『대동문화연구』56	여행기에 나타난 한국
『대동한문학』25	金正喜 / 李象靖
『동방한문학』30	樂齋 徐思遠 사상과 문학
『동방한문학』31	한국한문학 산문의 전개와 발전 양상
『역사와현실』62	이색의 삶과 생각
『영남학』9	고문서의 조사, 정리와 사료적 가치
『영남학』10	고문서 연구의 현황과 과제
『진단학보』102	李穡
『한국문화연구』10	한국인의 해외체험과 문화수용
『한국시가연구』21	한국시가의 동아시아적 지평
『한국실학연구』11	조선후기 달성서씨가의 학풍과 실학
『한국실학연구』12	실학, 일상, 문화-실학은 인간의 삶에 어떻게 다가섰는가
『한국한문학연구』37	한문학연구의 문화론적 방향 / 한국한문학과 문화콘텐츠의 만남
『한국한문학연구』38	한국 한문학 외연의 확장
『한문학보』15	연천 홍석주가의 학술과 문예
『한국한시연구』14	16~17세기 호남 한시의 풍정

특집·기획주제는 창립 10주년, 3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경우도 있고, 김정희·이상정·서사원·변영만·이색 등 개별 인물이나 홍석주가, 달성서씨가와 같은 가문 단위로 그 사상·학문·문학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경우, 그리고 특정한 주제를 세워서 종합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이색·변영만과 홍석주가 등에 대한 관심은 그 문집이나 관련 저작의 번역 성과와 맞물려 있다.<sup>11)</sup>

이 특집·기획주제의 면면을 보면, 학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제와 연구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상(일상성)에 관한 연구가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그중 국문학회의 일상 특집은 2005년도에 시작되어 2006년도까지 이어졌다.<sup>12)</sup> 한국실학학회는 「실학시대의 여행(심경호), 조선후기 지식인들이 선호한 조경식물과 조경문화」(심우경), 실학과 술(허시명), 「실학과 교육론의 근대성 문제(정순우), 이옥 문학의 일상성과 사물인식」(신익철)등, 실학과 일상·문화의 관련 양상을 다방면에 걸쳐서 조명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일상(일상성)에 대한 연구가 전근대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전근대인의 삶을 지배하는 구체적인 양상과 또 그 이데올로기로부터 이탈하려는 인간들의 노력을 섬세하게 확인하는<sup>13)</sup> 실천적인 작업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밖에 지역문학에 대한 관심, 소수자에 대한 관심도 보이고, 동아시아적 시각 속에서 한국문학을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가 특히 활발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기획주제 중에는 연구사적 계기 또는 투철한 문제의식보다 일종의 학문적 유행이나 추세를 따라서 마련된 것도 있어 보인다. 관련 연구 성과를 한데 묶어서 보여 준다는 점에서는 효과적이지만, 그에 앞서 더 뚜렷한 동기와 문제의식, 장기적인 안목 위에 준비되어야 기획주제의 의의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11) 대동한문학회의 변영만 특집은 『변영만 전집』 출간 기념으로 마련된 것이다. 한편, 근래 홍석주·홍길주에 관련된 번역·연구가 활발한데, 2006년도에도 홍석주의 도서분류서인 『여주 홍씨독서록』(리상용-문헌정보학 전공)이 나왔고, 진술한 것처럼 홍길주의 문집 번역 및 박사학위논문이 제출되었다. 이색의 문집은 민족문화추진위원회에서 완역해서 낸 바 있고, 이와 별도로 여운필·성범중·최재남등이 약 10년 동안 『목은시고』의 역주를 진행하여 최근 완역·출간했다(월인, 2007).

12) 이중 한문학과 관련된 것으로는 김동준, 한시에 나타난 일상의 의의와 역할, 『일기 등 잡기에 나타난 조선 후기 문인의 일상성의 양상』 등이 있다.

13) 강명관, 「한문학 연구와 일상」, 『한국한문학연구』37(한국한문학회, 2006. 6), 135면.

이외의 논문을 보면, 수도 많거니와 전체적으로 관심 주제의 폭도 넓어진 경향이 나타난다. 연구 성과는 참고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가운데 새 자료를 발굴해서 소개한 중요한 예만 몇 가지 소개한다. 「연암의 <열녀함양박씨전> 재고-새로운 자료 소개를 겸하여 (김혈조)는 愼敦恒의 <열녀박씨행록>, 함양군수 尹光錫의 <열부박씨전>, 산청현감 李勉齊의 <박열부전>, 『閒汨董』에 수록된 <열녀박씨전> 등 새로 발굴한 자료를 소개하고 연암의 <열녀함양박씨전>을 기왕에 소설로 규정했던 관점에 대한 반론을 펴는 논문이다. 학계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봄직한 주제로 생각된다. 金箕懋 詩 연구-새 자료 『雲嶠詩集』의 소개 (김운조)는 『과정록』에서 비중 있는 인물로 언급된 김기무의 시를 발굴해서 18세기 후반 북학과 문인들의 문학 활동 양상을 고찰했다. 「평양기생의 인생을 묘사한 소품서 『녹과잡기』 연구 (안대회)에서 다루어진 『녹과잡기』는 19세기 전기 韓在洛이 쓴 소품문으로, 당시 지방문화와 기생들의 세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새로 발굴한 김병연의 과체시 검토 (유년석·양동식), 『반계일고』의 고찰-실학과 실학파문학의 원류 (임형택), 「『한중록』의 새로운 이본-버클리 대학 소장 『弗明弗措』」(백승호)도 중요한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등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3. 문제적 지표와 몇 가지 제안

#### 3.1. 문학의 외연과 확장

첫 번째 문제적 지표는 ‘문학의 외연과 확장’이다. 외연 확장의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근래 더욱 진지한 논제가 되었다. 한국한문학회가 ‘한국 한문학 외연의 확장’을 기획주제로 세운 것은 이 문제를 한문학 연구의 중대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sup>14)</sup>

2006년도에는 이 문제를 실천적으로 보여 준 연구들이 꽤 나왔다. 詞文學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제출되었고(이승매), 불교문학(임종욱·배규범·주호찬),<sup>15)</sup> 서예(김광욱·최경춘), 辭賦·寓言(김진경)<sup>16)</sup> 등에 대한 연구도 중심에서 비껴나 있던 한문학 유산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이 크다.

한문산문의 경우, 외연 확장의 문제의식은 ‘한문산문의 전개와 발전 양상’을 기획주제로 내건 『동방한문학』<sup>31)</sup>에서 뚜렷하다. 여기에서는 ‘한문산문의 전개와 발전 양상’을 큰 주제로 하여 논설류 산문·서발·증서·잡명·서독·주의·애제문·잡기류·비지류 등 각 한문문체를 심도 있게 다루고 이를 한데 모아서 집중성을 높였다. 최근 소품문 연구가 유행이라고 할 정도로 성한데, 이런 중에 다른 학술지에서도 각종 문체를 다룬 논문들이 적잖이 발견되는 것은 고무적이다.<sup>17)</sup> 그러나 한문산문 연구는 금석문이나 고문서, 간찰

14) 그런데 이 기획주제에서 ‘외연 확장’이 지시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수록된 논문들로 추정해 보면, 새 자료를 발굴 소개하거나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학양식 또는 소외되었던 계층을 포함하거나 새 접근방법을 시도하는 것을 포괄하는 듯하다. 이것은 외연 확장의 방향·방법을 시사해 주기는 하나, 기획주제의 큰 이름에 부응하기에는 문제의식의 명료함 또는 집약성이 약해 보여서 아쉽다.

15) 전술한 임종욱·배규범의 논지와 다음 논문들: 주호찬, 여말 삼사의 오도시와 열반시, 『어문논집』53(민족어문학회, 2006. 4); 이규보의 불교인식과 불교관련시, 『한자한문교육』16(한자한문교육학회, 2006); 「이규보의 시에 나타난 불교인식의 추이」, 『한문학보』14(우리한문학회, 2006). 배규범, 「불교 회문시 일고찰」, 『어문연구』34-2(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여름); 草衣意恂의 茶詩 연구-다선일여의 시문학적 해명, 『온지논총』15(온지학회, 2006. 12); 허경범종의 잡체시, 『정신문화연구』29-1(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봄).

16) 김진경, 한국 사부에 나타나는 비애의 정서-조선시대 창작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동방한문학』30(동방한문학회, 2006); 한국 사부에 나타나는 우연적 성격에 관한 연구, 『한자한문교육』16(한자한문교육학회, 2006).

17) 역사학·고문서학을 포함해서 눈에 띄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 정우락, 아버지의 묘갈명-남명의 아버지 조언형의 묘갈, 『선비문화』10(남명학연구원, 2006 가을); 강민구, 조선후기 영남사인 잡명의 내향성과 관념성-훈수, 지수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26(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조동원, 금석문의 역사와 자료적 가치, 『대동문화연구』55(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김용선, 고려시대 묘지명 문화의 전개와 그 자료적 특성, 『대동문화연구』55(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원창애, 물천 선생 후손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그 연구대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sup>18)</sup>

연구대상을 확대하려면 무엇보다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술한 바 새 자료를 발굴한 성과를 비롯하여,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김경미 외)은 이바지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여성생활사 자료집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활과 문화를 보여 줄 자료를 전반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제문·행장·행록·행적기·전·비문·묘지명 등 여성 관련 자료들을 번역한 것이다. 그 대상은 여성이지만 기록한 사람들은 남성 문인들이다. 송시열·남구만·이단상·김만기·김만중·윤증·김수항·김창협 등 17세기를 대표하는 학자와 문인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연구대상을 확대하는 데도 기여하지만, 여성의 이야기이되 남성 사대부의 의식을 통해 재구성된 이야기이므로, 여성의 생활·문화 및 남성 사대부의 의식세계를 아울러 살필 수 있다는 것도 이점이다.

또한, 인접 학문 분야의 연구 성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 2006년도에 한해 말하면, 『대동문화연구』55의 ‘동아시아 중세사의 금석문’ 특집, 『영남학』9·10의 ‘고문서’ 특집, 그리고 조선 개국 전후부터 개항까지 명·청으로 전송된 조선의 외교문서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논문(이선홍, 고문헌관리학 전공)<sup>19)</sup>과 퇴계·남명·율곡의 문집이 편간되는 과정과 의미를 고찰한 논문(서정문, 역사학 전공)<sup>20)</sup>이 주목된다. 금석문이나 고문서, 외교문서, 문집 편간 과정과 의미 등은, 한문학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든 도구로 삼든 중요하게 포섭해야 할 부분이다.

외연에 있는 분야의 전공자와 직접적으로 연대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각 분야 전공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汎國學 자료를 발굴·연구하는 ‘문헌과 해석’ 팀의 활동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학술대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컨대, 李穡 특집의 경우 한국사연구회·진단학회에서 다루어졌는데, 역사학자들이 주축이 되고 문학 전공자는 토론 또는 시 부분을 담당하는 형식이다. 『한국실학연구』는 역사학·한국철학·과학기술·조경사·교육사학 전공자, 그리고 전통술 품평가 등 각 분야 전공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발표자의 구성과 참여 방식이 더 다면적이다. 이와 같은 시도는 연구자들이 전문적인 의견을 내놓고 또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주제 또는 대상의 의미를 더 입체적이고 풍부하게 살려내는 데 효과적이다.

외연 확장은 연구 대상을 넓히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한문학에 대한 인식·시야의 확대 문제이다. 그동안 고수해 왔던 연구 영역의 고도수위를 낮추어서 바깥으로 나가고 바깥에 있던 것들을 끌어들이며,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작품이 창작되고 유통된 맥락에 대한 조망까지 포함해야 한다.<sup>21)</sup> 이런 점에서 외연 확장은 文化史의 문제와 연결된다. 그동안 문화론적 인식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노력도 꽤 진행되었으나 아직은 출로를 모색하는 단계이다. 이 문제 의식을 더 심화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은 앞으로 한문학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 3.2. 한국과 이웃의 교섭

가의 고문서 분석-특히 간찰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22(남명학연구소, 2006. 12); 전일우, 『연원직지』 연구-‘기’를 중심으로, 『승실어문』22(승실어문학회, 2006); 남미혜, 「17세기 사대부 가훈을 통해 본 가례의식-초려 이유태(1607-1684)의 정훈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24(동양고전학회, 2006. 6); 서정화, 이규보의 논변류 산문 연구, 『한국한문학연구』38(한국한문학회, 2006. 12) 등.

18) 심경호, 「한문산문 연구에 관한 몇 가지 제안」, 『동방한문학』31(동방한문학회, 2006), 14면.

19) 이선홍, 「조선시대 대중국 외교문서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6).

20) 서정문, 「조선중기의 문집편간과 문과형성」(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006).

21) 심경호, 앞의 논문, 24-25면.



두 번째 문제적 지표는 ‘한국과 이웃의 교섭’이다. 2006년도에는 이 방향의 연구 성과가 괄목할 만하다. 우선 각 학회의 특집·기획주제에서 이와 관련된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대동문화연구』55의 ‘동아시아 중세사회의 금석문’, 『대동문화연구』56의 ‘여행기에 나타난 한국’, 『한국문화연구』10의 ‘한국인의 해외 체험과 수용’, 『한국시가연구』21의 ‘한국시가의 동아시아적 지평’ 등이 그 상황을 보여 준다. 한국인의 해외 체험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한국체험도 함께 다루어져 쌍방향으로 이루어진 체험 및 의식이 살피지고, 역사 학자, 외국인 학자들도 대거 참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해외체험과 관련된 성과가 총서, 역주서,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등에 두루 걸쳐 나왔다. 무엇보다 『연행록연구총서』(조규익 외)가 완간된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총 10권의 거질로, 문학(총서1~5), 역사(총서6), 정치·경제·외교(총서7), 사상·의식(총서8), 복식·건축·회화·지리(총서9~10)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400여 종의 연행록을 집대성한 자료총서 『연행록전집』 100권(임기중 외)의 작업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이 연구총서의 완간으로, 『燕行錄學』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토대가 갖추어진 셈이다.

연행 관련 연구가 지속되는 가운데<sup>22)</sup> 被虜·漂流, 일본 체험에 관한 논저들도 많이 보인다. 《겨레고전문학선집》에서 2006년도에 펴낸 책 가운데 『간양록, 조선 선비 왜국 포로가 되다』·『해유록, 조선 선비 일본을 만나다』·『표해록, 조선 선비 중국을 표류하다』(김찬순)등 삼종의 번역서가 보이고, 동양사 전공자가 참여한 『최부 표해록 역주』·『최부 표해록 연구』(박원호 외)는 표해록 연구에 새 장을 열어 준다.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에서도 관련 연구가 다수 보인다.

그중에서도 일본 체험에 관련된 논저들이 많아졌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통신사 문학 전공자들이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sup>23)</sup> 새 연구자들이 참여한 성과도 많았다. 특히 재미사행 통신사 문학 연구는 일련의 역주서와 학위논문이 동시에 나옴으로써 큰 매듭을 지었다. 『연행록연구총서』 출간을 어름하여 후속 작업으로 ‘통신사문학연구총서’가 기획되고 있다는 소식이 반가운데, 이는 연구자들의 관심이 중국 편향에서 벗어나 일본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려 준다.

한편, 『우리 한문학사의 해외체험』(이혜순 외)<sup>24)</sup>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해외체험 관련 연구의 진전을 보여 준다. 여기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해외체험의 실상이 고찰되었다. 문학사의 각 시기의 중요 단계에 외국에 갔던 사람들이 상대국의 현실과 역사에 대해 보여 준 세밀한 관찰과 날카로운 비판의식은 새 정신사의 출현에 기여했으며, 사상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 기록 방식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변모의 단서가 된다는 점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이상의 연구 성과는 한국을 고립된 지점에 놓지 않고 이웃과의 부단한 교섭 속에서 바라보고 특히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균등한 관심을 견뎌오으로써, 한국과 한국문학을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이해하는 구체적인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동아시아 담론은 과거 한문학 연구를 부단히 간섭해 온 이념 지향적 연구를 극복하고 문학사의 실체적 진실을 전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한문학 연구의 폭과 깊이를 더한다는 점에서도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sup>25)</sup>

22) 김동석, 유언호의 『연행록』과 조환의 『연행일기』에 대한 고찰-대청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56(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12); 김새미오, 연천 홍석주의 연행과 그 의미, 『동방한문학』30(동방한문학회, 2006); 이승수, 연행로상의 공간 탐색, 봉황산성-안시성설과 관련하여, 『정신문화연구』29-2(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여름) 등.

23) 정영문, 김성일의 『해사록』 연구, 『승실어문』22(승실어문학회, 2006); 한태문, 『통신사 노정에 반영된 한일 문화교류의 한 양상-일본 岡山縣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23(열상고전연구회, 2006. 6).

24) 이혜순, 한문화권 형성 초기 한시 창수를 통한 동북아 국가간의 문화교류; 이은영, 여말·선초 사행시를 통해 본 명 사행길; 배주연, 「이안눌의 육로와 해로를 통한 사행체험의 두 기록」; 최윤정, 「명·청 교제기 조선문사의 사행체험」; 남은경, 「심양일기」 연구(남은경); 고연희, 울분과 탄식의 연행; 김경숙, 「현천 원증거의 대마도인 인식과 그 의미」; 박재금, 「원증거의 『화국지』에 나타난 일본인식」; 최숙인, 「여행자 문학의 관점에서 본 이덕무의 『입연기』 연구」; 임유경, 「서호수의 『연행기』-지식과 정보의 寶庫」; 김현미, 18세기 연행록 속에 나타난 중국의 여성; 김남이, 「개화기 조선문사의 일본 문물체험과 일본인식」. 이상 이혜순 외, 『우리 한문학사의 해외체험』(집문당, 2006. 3).

25) 황위주, 「한국한문학 연구에 있어서 동아시아 담론의 의미」, 『한국한문학연구』37(한국한문학학회, 2006. 6), 128-129면.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연구 상황은 ‘동아시아적 지평’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동아시아 담론은 성행하지만 선언적 구호가 더 크고, 연구 성과는 많이 나왔지만 동아시아적 지평에 대한 진지한 숙고 없이 학문적 유행이나 흐름을 따른 경우가 적지 않아 보인다. 또한 연행 문학 연구는 새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통신사 문학 연구는 아직 갈 길이 멀고, 양쪽 연구는 또 서로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 문학을 동아시아 문학이란 더 큰 범주에다 그 위치를 잡고 그 위치에서 세계적 지평과 교섭하고 세계문학에 참여해야 한다는 숙제<sup>26)</sup>를 풀기 위해서는 더 거시적인 통찰과 구체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 3.3. 고전과 현재의 소통

세 번째 문제적 지표는 ‘고전과 현재의 소통’이다. 이야말로 근래 학계의 최대 화두이다. 여기에서는 2006 년도의 주목할 만한 성과를 중심으로 하여, 고전을 대중에게 내놓는 구체적인 방법, 고전이 현재와 소통하는 근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sup>27)</sup>

우선, 선집을 내놓는 방식이다. 《겨레고전문학선집》은 북한 문예출판사의 《조선고전문학선집》을 국내 출판사가 정식 계약을 맺고 펴낸 것이다.<sup>28)</sup> “고전연구자들과 일반대중 모두 보게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북녘의 번역 성과를 우리가 수입해서 출판한 것인데, 우리말의 풍부한 모습을 잘 살리고 있는 점 등 고전이 대중들에게 접근하는 방법과 태도에서 눈여겨 볼 점들이 있다.

우리 쪽에서는 개별 작가의 선집을 내는 일이 더 빈번하다. 태학사에서 꾸준히 산문선을 내고 있고, 2006 년도부터 돌베개에서 ‘우리고전문학100선’을 내고 있다. 이 100선이 추구하는 기본 방향은, ‘쉽게 접근할 있을 것’, ‘품격과 아름다움과 깊이를 갖출 것’이다. 이 둘을 아우르기 위해서 내용과 형식면에서 새로운 모색을 시도했다. 쉽게 번역하고, 간단한 주석을 달고, 뒤에는 해설과 작가 연보, 찾아보기를 붙였다. 선집에서는 가장 잘 알려진, 정전으로 확정된 작가나 작품을 머리에 세우는 것이 보통이거니와, 100선은 ‘유금’이라는 낯선 인물로 출발한다. 고전에 대한 생각과 선집의 새 모형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평가된다.

두 번째는 텍스트를 읽고 감상하는 법의 개발이다. 한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책으로 『우리 한시 살려 읽기』(송준호), 『한시의 세계』(심경호)가 좋은 대조를 이룬다. 전자가 한시를 제대로 살려 읽기 위한 시론이라면, 후자는 자신의 한시 감상법을 내놓은 새 독법서이다. 이에 대해 『연암을 읽는다』(박희병)는 연암의 산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읽기’를 시도한 책이다. 한 편의 글 전체를 보이고, 다시 단락별로 제시해 자세히 음미하고, 마지막으로 총평을 가하고 있다. 이것은 연암 산문의 미묘하고 아름다운 국면을 제대로 읽어내기 위한 배려로서, 텍스트의 특성을 고려한 읽기 방식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매체를 개척하는 방법이다. 한국한문학회 기획주제의 하나가 ‘한국한문학과 문화콘텐츠의 만남’이다. “한문학은 고전문학이 아니라 현대문학이다.”(김용옥), 이것이 이 기획의 테제이다. 여기에 방송인, 애니메이션 PD 등이 참여해서 자신의 실경험을 내놓았다. 문학 전공자는 “서로 다른 분야가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여 참되게 만나는 자리”(이지양)라고 하고, 방송 진행자는 “그동안 연구해 온 것들을 한문학 안에만 가둘 것이 아니라 문화 전반 각 분야와 협력해서 풀어놓는 노력을 해야 할 것”(최영미)이라고 했다. 문학 전공자와 콘텐츠 생산·전달자들이 의기투합하는 현장이다. 새로운 매체환경 시대에 임하여 한문학이 본격적으로 현재와 현재적 방법으로 소통하고자 한 시도로서 소중하다. 다만, 이것이 단발성 행사로 그치지

26) 임형택, 「한국문학연구자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고전문학연구』25(한국고전문학회, 2004), 6면.

27) 선행 연구사 검토에 한해 보면, ‘한문학과 현대의 소통’(강혜선, 2002년도 연구 동향), ‘독서 확대를 위한 몇 갈래의 대응’(김동준, 2003년도 연구 동향)에서 이미 자세히 논의되었다.

28) 총 100권 중에서 2006년도에는 이중 12·20권이 출간되어, 1차분 20권이 완간되었다. 홍기문·리상호·김찬순 등 북녘의 저명한 학자들이 번역에 참여했다.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문학 작품의 독창적 연구자, 한문학의 문헌학자·번역가, 한문학의 대중적 해설자 및 문화사업의 응용인력 등의 분화 등, 각기 전문성을 지키면서 지속적인 상호 협조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sup>29)</sup>

한문학 연구는 최종적으로 대중교양, 국민교양으로 녹아들어서 현대 문화 창성에 기여할 수 있다.<sup>30)</sup> 그런 점에서 대중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번역과 해설, 인문교양서를 내놓거나, 콘텐츠를 개발하고 매체를 개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방면에 관해서는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이 높고, 성과 또한 탁월하다.

그런데 ‘전문 번역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어우야담』(신익철 외) 번역자와 이에 대해 서평을 쓴 기자 간에 오고간 논쟁은 여러 가지 생각을 일게 한다.<sup>31)</sup> 지금까지 전문 번역서라는 이름으로, 형편상 부득이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혹 고답적인 방식을 고수하여 대중의 접근을 배제해 오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진정 소통을 시대적 과제로 여긴다면, 전문 번역서에 임하는 자세부터 진지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 4. 나오는 말

이상에서 2006년도 한문학 분야 연구의 동향을 개괄하고 그중에서 공동으로 고민해 봄직한 중요한 쟁점 및 그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해의 연구 성과는 어느 해에 뒤지지 않으며,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더 많아진 듯이 보인다.<sup>32)</sup> 이 양적인 확대에 비례하는 만큼 질적 성장이 제고되었는가 하는 것은, 쉽게 말하기 어렵다. 이것은 이 해 연구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본고의 한계이다. 질적 성장을 운위하기 위해서는 논저들을 꼼꼼하게 읽고 또 그것을 전체 연구사 속에 놓고서 의의를 가늠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겨를이 없었다. 대신 되도록 많은 연구 성과를 제시하고 충실하게 보고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눈에 쏠리는 것들을 개괄하는데 그치고 말았다.<sup>33)</sup> 연구사 검토에서 해마다 토로되었던 불평과 변명을 되풀이하면, 이것은 필자의 한계 이전에 한문학 연구 영역 및 연구 자체가 갖는 특성에 기인한 문제이다.

거칠게 살펴보았으나 그중에서 중요한 경향성을 찾아낼 수는 있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눈에 띄는 것은 한문학의 폭과 넓이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일반화되고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단행본 및 학술논문에서 두루 보이는 지역문학에 대한 관심, 일상에 대한 관심을 비롯해서, 본고에서 지표로 제시한 문학의 외연과 확장, 한국과 이웃의 교섭, 고전과 현재의 소통은, 실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이것은 오랫동안 고수해 왔던 중심 편향 또는 거대담론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학문적 노력, 그리고 인문학·고전문학의 위기를 타개하고 새 활로를 탐색하는 작업이 다방면으로,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아직은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통찰의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의식

29) 임형택, 「한문학 유산과 그 문화론적 인식」, 『한국한문학연구』37(한국한문학회, 2006. 6), 45면.

30) 이동환, 「한문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한문학연구』37(한국한문학회, 2006. 6), 26면.

31) 2006년 12월 29일 『한겨레』에 서평이 실린 후 2007년 2월 초까지 번역자와 기자 사이에 여러 차례 서면을 통한 논쟁이 오갔다. 서평-야사와 괴담으로 읽는 조선시대 (이상수) / 「반론-번역과 소통의 맥락 (신익철)」 / 「답변-반론 던진 신익철 교수에 답한다 (이상수)」 / 「재반론-이상수 기자의 지적에 대한 답변 (신익철)」 / 「신익철 교수의 재반론에 대한 답신-옛글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을 것인가 (이상수)」. 이 논쟁에서 기자는 “藪이 중요하지 썩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다. 인문학자들은 굶어죽을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학계의 고전 주석의 수준” 운운하는 지적은 해당 번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학계 연구자들’에게 매우 억울하고 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누가 독자인가? 연구자들이 읽기엔 부족한 대목이 없지 않다고 할 수밖에 없고, 일반 독자들이 읽기엔 불친절한 대목이 없지 않다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비판에는 연구자들이 경청할 만한 부분이 없지 않다.

32) 이 수량적 확대는 연구자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연구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제도적 풍토, 그리고 다방면으로 연구 활동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환경이 작용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33) 또 복잡 다대한 성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서술의 중복이 있었음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필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여 중요한 논저들이 누락되었을까 걱정스럽다. 이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

이 심화되고 학문적 실천이 축적되어 가고 있음은 분명 의의 있는 성과로 판단된다.

다만, 이와 같은 폭과 넓이를 확대하려는 노력에 비해, 일부 논저 외에 심원한 문제의식과 오랜 시간 동안 담금질한 학문적 깊이를 보여 주는 성과가 많지 않고,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도가 보이긴 하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는 것은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오늘날 한문학 연구자에게는 ‘전문적 깊이’와 ‘창조적 활발성’이 동시에 요청된다.<sup>34)</sup> 그런데 창조적 활발성에 대한 요구가 큰 시대이다 보니 전문적 깊이를 추구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가려져 보인다. 기우 삼아 말하면, 시대의 추세에 보조를 맞추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한문학 원전에 대한 연구·해석을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 관심의 폭을 외향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긴요하지만 자신의 관심 주제를 꾸준히 심화·확대하면서 학문적 깊이를 더해가는 일도 저버릴 수 없다. 또한 ‘큰 담론’과 ‘작은 담론’을 조화롭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 거대담론을 지나간 시대의 것으로 치부하기보다 이를 새로운 논리로 재해석하는 노력을 경주하여, 작고 다양한 것에 대한 관심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축적된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자기 내실을 탄탄히 다지면서 새 시대 새 환경에 현명하게 적응해 가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재 한문학 연구가 풀어야 할 가장 중대한 과제일 것이다.

34) 임형택, 「한문학 유산과 그 문화론적 인식」, 『한국한문학연구』37(한국한문학회, 2006. 6), 45면.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강혜선 외,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3-고전문학 하:성·사랑·일상』, 2006. 9.  
 구지현, 『(1763) 계미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보고서, 2006. 10.  
 김경수, 『고려문학산고』, 제이앤씨, 2006. 10.  
 김명호 외,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1-고전문학 상:신화·민담·여행기』, 2006. 9.  
 김문희, 『전기소설의 서술문체와 환상성』, 보고서, 2006. 5.  
 김미란, 『한국고전문학의 분석과 이해』, 와우출판사, 2006.  
 김방룡, 『보조 지눌의 사상과 영향』, 보고서, 2006. 7.  
 김영주, 『조선후기 한문비평 연구』, 보고서, 2006. 11.  
 김용덕, 『전기문학의 이해』, 역락, 2006. 12.  
 김우정, 『최립 산문의 예술경계』, 한국학술정보, 2006.  
 김종철 외,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2-고전문학 중:옛소설·옛노래』, 2006. 9.  
 김태준, 『한국의 여행문학』, 이화여대 출판부, 2006.  
 김홍규 외,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와 문화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6.  
 박기석 외, 『열하일기의 재발견』, 월인, 2006.  
 박명희, 『호남 한시의 공간과 형상』, 경인문화사, 2006. 11.  
 박원호, 『최부 표해록 연구』, 고려대 출판부, 2006. 1.  
 성범중, 『동국사영 연구』, 월인, 2006. 2.  
 손오규, 『산수미학탐구』, 제주대 출판부, 2006.  
 송재소 외, 『(박지원·박제가) 새로운 길을 찾다』, 경기문화재단, 2006.  
 송준호, 『우리 한시 살려 읽기』, 새문사, 2006. 6.  
 송혁기, 『조선후기 한문산문의 이론과 비평』, 월인, 2006.  
 심경호, 『간찰-선비의 마음을 읽다』, 한얼미디어, 2006. 5.  
 ———, 『한시의 세계』, 문학동네, 2006. 2.  
 유권석, 『한국 전문학 연구』, 보고서, 2006. 10.  
 유호선, 『조선후기 경화사족의 불교인식과 불교문학』, 태학사, 2006.  
 유호진, 『한국 한시의 인생 이상』, 태학사, 2006. 11.  
 윤호진, 『남명의 인간관계』, 경인문화사, 2006. 7.  
 이동환, 『실학시대의 사상과 문학』, 지식산업사, 2006. 5.  
 이민홍, 『한문화의 원류』, 제이앤씨, 2006.  
 이승매, 『한국사문학통론-사문학』, 성균관대 출판부, 2006.  
 이종묵, 『조선의 문화공간1-조선초기 태평성세와 그 균열』, 휴머니스트, 2006.  
 ———, 『조선의 문화공간2-조선중기 귀거래와 안분』, 휴머니스트, 2006.  
 ———, 『조선의 문화공간3-조선중기 나아감과 물러남』, 휴머니스트, 2006.  
 ———, 『조선의 문화공간4-조선후기 내가 좋아하는 삶』, 휴머니스트, 2006.  
 이창룡, 『누각과 정자에서 읊은 시세계』, 푸른사상, 2006. 11.  
 이혜순·박재금 외, 『우리 한문학사의 해외체험』, 집문당, 2006. 3.  
 임기중, 『연행록 연구』, 일지사, 2006. 4.  
 임종욱, 『여말선초 한문학의 동향과 불교 한문학의 진폭』, 보고서, 2006. 10.  
 ———, 『우리 고승들의 선시세계』, 보고서, 2006. 10.  
 정우락, 『남명문학의 현장』, 경인문화사, 2006. 12.  
 정출현·고미숙·조현설·김풍기, 『고전문학사의 라이벌』, 한겨레출판사, 2006.  
 조규익, 『연행록연구총서1-문학』, 학교방, 2006. 9.

\_\_\_\_\_, 『연행록연구총서2-문학』, 학고방, 2006. 9.  
 \_\_\_\_\_, 『연행록연구총서3-문학』, 학고방, 2006. 9.  
 \_\_\_\_\_, 『연행록연구총서4-문학』, 학고방, 2006. 9.  
 \_\_\_\_\_, 『연행록연구총서5-문학』, 학고방, 2006. 9.  
 \_\_\_\_\_, 『연행록연구총서6-역사』, 학고방, 2006. 9.  
 \_\_\_\_\_, 『연행록연구총서7-정치 경제 외교』, 학고방, 2006. 9.  
 \_\_\_\_\_, 『연행록연구총서8-사상 의식』, 학고방, 2006. 9.  
 \_\_\_\_\_, 『연행록연구총서9-복식 건축 회화 지리』, 학고방, 2006. 9.  
 \_\_\_\_\_, 『연행록연구총서10-복식 건축 회화 지리』, 학고방, 2006. 9.  
 주호찬, 『고려말 오도송 연구』, 보고서, 2006. 8.  
 \_\_\_\_\_, 『이규보의 불교인식과 시』, 보고서, 2006. 11.  
 최석기, 『나의 남명학 읽기』, 경인문화사, 2005. 9.  
 \_\_\_\_\_, 『남명과 지리산』, 경인문화사, 2006. 12.  
 한국우언문학학회 편, 『우언의 인문학적 위상과 현대적 활용』, 2006.  
 홍선표 외, 『17·18세기 조선의 외국서적 수용과 독서문화(이화한국문화연구총서3)』, 혜안, 2006. 2.  
 황재국, 『가정 이곡의 한시 연구』, 보고서, 2006. 2.

2. 자료·번역

權璟, 『臺隱先生文集』, 권호기 역, 대은선생문집국역간행위원회, 2006.  
 강준흠, 『삼명시화』, 민족문화연구소 한문분과 역, 소명출판, 2006. 10.  
 강 항, 『간양록, 조선 선비 왜국 포로가 되다(겨레고전문학선집15)』, 김찬순 역, 보리, 2006. 10.  
 권이진, 『국역 有悔堂集』1~3, 안동권씨유희당과중중, 2006.  
 유인식, 『역주 大東詩史』, 권진호 역, 보고서, 2006. 11.  
 기태완, 『천년의 향기 한시산책』, 섬앤섬, 2006. 10.  
 김경숙, 『조선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원중거, 『승사록』 역주)』, 소명출판, 2006. 3.  
 김기진, 『명와집』, 나계문화연구회, 2006.  
 김동욱, 『옛 문인들의 붓 끝에 오르내린 고려시2-고려중기:무신집권기편』, 월인, 2006. 2.  
 김득신, 『국역 柏谷集-絶句篇』, 신범식 역, 파미르, 2006. 2.  
 김려, 『글짓기 조심하소-조선후기 김려의 시와 글(겨레고전문학선집12)』, 오희복 역, 2006. 2.  
 김보경, 『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남옥, 『일관기』 역주)』, 소명출판, 2006. 3.  
 김부식·일연,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놓아라-설화의 시대, 영험한 이야기들(겨레고전문학선집17)』, 리상호 외역, 보리, 2006. 7.  
 김수진 편역, 『풀이 되고 나무가 되고 강물이 되어-신흥 선집』, 돌베개, 2006. 11.  
 김아리 편역, 『우주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홍대용 선집』, 돌베개, 2006. 11.  
 金麟祥, 『국역 鶴山實紀』, 학산정사, 2006.  
 김주수, 『한시의 그늘에 서서』, 보고서, 2006. 9.  
 김풍기, 『강원 한시의 이해』, 집문당, 2006. 1.  
 \_\_\_\_\_, 『삼라만상을 열치다-한시에 담은 24절기의 마음』, 푸르메, 2006. 10.  
 김하라 편역, 『욕심을 잊으면 새들의 친구가 되네-이규보 선집』, 돌베개, 2006. 11.  
 남공철, 『작은 것의 아름다움-남공철 산문선』, 안순태 역, 태학사, 2006. 5.  
 박석무, 『새벽녘 초당에서 온 편지-풀어쓰는 다산이야기2』, 문학수첩, 2006. 8.  
 박재금,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일본을 기록하다(원중거, 『화국지』 역주)』, 소명출판, 2006. 3.  
 박중혁, 『仙遊巖詩』, 국민대 출판부, 2006. 2.  
 박희병 편역, 『말뚝구슬-유금시집』, 돌베개, 2006. 11.  
 \_\_\_\_\_, 『연암을 읽는다』, 돌베개, 2006. 4.  
 이 설, 『국역 북암집』, 북암선생기념사업회, 2006.

- 성현·어숙권 외, 『거문고에 귀신이 붙었다고 야단(겨레고전문학선집18)』, 홍기문·김찬순 역, 보리, 2006. 7.
- 신돈복, 『국역 학산한언』, 김동욱 역, 보고사, 2006. 5.
- 신유한, 『해유록, 조선 선비 일본을 만나다(겨레고전문학선집16)』, 김찬순 역, 보리, 2006. 10.
- 신정일, 『(다시 쓰는) 택리지』, 휴머니스트, 2006. 2.
- 신현규 편저, 『고려조문인줄기』, 보고사, 2006. 6.
- 신후담, 『하빈선생전집』1~9, 하빈선생전집간행위원회, 아세아문화사, 2006.
- 변영만, 『변영만 전집』 상·중·하,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6.
- 안덕린, 『국역 사촌선생문집』, 안병태 역, 사촌선생문집간행위원회, 2006.
- 안영길, 『조선고전문학논고』, 아세아문화사, 2006.
- 유도수, 『국역 민산별집』, 유용우 역[발행처불명], 2006.
- 유몽인, 『어우야담』, 노영미·신익철·이형대·조유희 역, 돌베개, 2006. 11.
- 유몽인·정재륜 외, 『폭포는 왜지가 다 먹었지요(겨레고전문학선집19)』, 김찬순 역, 보리, 2006. 7.
- 유중영, 『입암일고』, 유용우·이영춘 역, 풍산부원군기념사업회, 2006.
- 윤행임, 『역주 방시한집』, 전승렬 역, 보고사, 2006. 11.
- 윤호진 편역, 『고전비평자료유편-작가론』, 민속원, 2006. 6.
- 이 달, 『국역 손곡집』, 허경진 역, 보고사, 2006. 2.
- 이명준, 『국역 잠와유고』, 전의이씨잠와공파화수회, 2006.
- 이승호, 『勿齋遺稿』, 김근태·이승창·홍혁기 역, 선학사, 2006.
- 이승수, 『거문고 줄 꽃아놓고-옛사람의 사귀』, 돌베개, 2006. 9.
- 이원길, 『안동 여인 한시를 짓다』, 파미르, 2006. 6.
- 이정암, 『西征日錄-附退憂詩』, 이장희 편, 플러스예감, 2006.
- 이정자, 『제정공 이달충 문학-연구논문과 해설 번역 및 영인본』, 국학자료원, 2006.
- 임매 외, 『내시의 안해(겨레고전문학선집20)』, 김세민 역, 보리, 2006. 7.
- 전경목 외역, 『유서필지-고문서 이해의 첫걸음』, 사계절출판사, 2006. 7.
- 정길수 편역, 『길 위의 노래-김시습 선집』, 돌베개, 2006. 11.
- 정도진, 『불씨잡변』, 이기훈 역, 계명대출판부, 2006. 3.
- 정우락, 『남명문학의 현장』, 경인문화사, 2006.
- 정우봉, 『아침은 언제 오는가-이학규 산문선』, 태학사, 2006. 12.
- 정인보, 『舊園文錄』 상·중·하, 정양완 역, 태학사, 2006.
- 정종호, 『국역 낙주유고(진)』, 김홍영·김여옥·김규필 역, 학민문화사, 2006.
- 조남권, 『한국고전비평론 권1-조선중기』, 민속원, 2006. 12.
- 조성기, 『양반가문의 쓴소리-이덕무 <사소절>, 이 시대에 되살려야 할 선비의 작은 예절』, 김영사, 2006. 1.
- 최귀묵, 『김시습 조동오위요해의 역주 연구』, 소명출판, 2006. 7.
- 최 부, 『최부 표해록 역주』, 박원호 역, 고려대출판부, 2006. 1.
- \_\_\_\_\_, 『표해록, 조선 선비 중국을 표류하다(겨레고전문학선집14)』, 김찬순 역, 보리, 2006. 10.
- 최지너 편역, 『개구리 울음소리-장유 선집』, 돌베개, 2006. 11.
- 최행귀 외, 『우리 겨레의 미학사상-옛 11 선비 33인이 쓴 문학과 예술론(겨레고전문학선집13)』, 류수·리철화 외역, 보리, 2006. 4.
- 한형길, 『유촌 한형길 선생문집』, 전규호 역, 청주한씨유촌공파중증, 2006.
- 허권수, 『남명의 산문선』, 경인문화사, 2006. 12.
- \_\_\_\_\_, 『남명의 한시선』, 경인문화사, 2006. 12.
- 許 彙, 『표은선생유집』, 성백호 역, 전통문화연구회, 2006.
- 홍가신, 『만진당 홍가신 선생 문집』, 이석구 역, 만진당선생문집복간위원회, 2006.
- 홍길주, 『峴首甲藁』 상·하, 박무영·이은영 역, 태학사, 2006.
- \_\_\_\_\_, 『縹齋乙幟』 상·중·하, 박무영·이주해 역, 태학사, 2006.
- \_\_\_\_\_, 『沆瀣丙函』 상·하, 박무영·이현우 역, 태학사, 2006.
- \_\_\_\_\_,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생각 창고-홍길주의 수여방필 4부작』, 정민 외역, 돌베개, 2006. 7.

- 홍대용, 『의산문답-개혁을 꿈꾼 과학사상가 홍대용의 고뇌』, 김영호·이숙경 역, 꿈이있는세상, 2006. 4.  
홍석주, 『역주 흥씨독서록』, 리상용 역, 아세아문화사, 2006. 6.  
홍선표 외, 『17·18세기 조선의 외국서적 수용과 독서실태-목록과 해제(이화한국문화연구총서4)』, 해안, 2006. 2.  
홍종일, 『錦雲漢詩集』, 김택춘 해설, 고륜, 2006. 3.  
홍학회, 『부사산 비파호를 날 듯이 건너(성대중, 『일본록』 역주)』, 소명출판, 2006. 3.  
황 현, 『매천야록』, 허경진 역, 서해문집, 2006. 12.  
김경미 외,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이화한국문화연구총서2)』1~4, 보고서, 2006. 2.  
韓 漚, 『漫隱韓漚先生文集』, 김동주·기태완 역, 청주한씨만은공과중중, 2006.  
순천대 박물관 편, 『매천 황현과 매천집』, 2006.  
한국문학회 편, 『한국문학과 불교1』, 세종출판사, 2006.

### 3. 학위논문

#### (1) 박사학위논문

- 강정화, 「16세기 유일문학 연구-출처의식과 현실대응을 중심으로」, 경상대 박사학위논문, 2006.  
구지현, 「계미(1763) 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6.  
권정원, 「이덕무 초기 산문의 공안과 수용양상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06.  
김광욱, 「한국의 논서시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2006.  
김영미, 「어우 유몽인의 산문론과 산문의 서술방식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2006.  
김영주, 「조선후기 소론계 문인의 문학론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06.  
김정환, 「매천시과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6.  
김희자, 「玄洲 趙纘韓의 시문학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2006.  
나종선, 「현국 유종선의 도학시 연구」,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2006.  
박영관, 「옥봉 백광훈의 교유와 시문학 연구」,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6.  
박영미, 「일제강점 초기 한학 지식인의 문명관과 대일의식-친일적 경향을 중심으로」,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2006.  
배주연, 「동악 이안눌 시문학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6.  
송병우, 「표문의 설득 수단 연구-『고려사』 소재 외교 표문을 중심으로」,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2006.  
오대혁, 「『금오신화』의 연구-선사상적 사유체계를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06.  
이선홍, 「조선시대 대중국 외교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6.  
이승매, 「한국사문학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6.  
정경훈, 「우암 송시열 산문의 일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6.  
정인혁, 「조선후기 전계 단형서사체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2006.  
최경춘, 「18세기 서예론 연구-이광사·강세황·김상숙을 중심으로」,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06.  
최 식, 「항해 홍길주 산문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6.  
한성금, 「허난설헌 한시의 미학」,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6.  
홍순래, 「한국 기공시의 전개양상 연구-몽중작을 중심으로」,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2006.  
황수정, 「매천 황현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6.  
서정문, 「조선중기의 문집편간과 문파형성」,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006.

#### (2) 석사학위논문

- 강영숙, 「조선후기 열녀전의 유형과 의미」,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06.  
강혜규, 「삼포 안석경의 산문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6.  
고선미, 「옥소 권섭의 시문학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2006.  
김미선, 「최부 『표해록』의 기행문학적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06.



- 김미향, 「『가이후소(회풍조)』의 한시 연구-한인계 작가와 신라사의 응답시를 중심으로」,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2006.
- 김미화, 「한문학 작가의 아동기 한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수영, 「『요로원야화기』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순희, 「하담 김시양의 시세계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은영, 「『동문선』 소재 '奏議'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을림, 「연암의 일신수필 연구」, 호남대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지은, 「17세기 전반 해로 사행문학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찬동, 「사암 박순의 당시풍 시에 관한 연구」, 청주대 석사학위논문, 2006.
- 김현경, 「남공철의 척독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6.
- 김현옥, 「소암 임숙영의 경세사상 연구 -『신해전시대책』을 중심으로」,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2006.
- 김현진, 「사계 김장생의 <대학변의> 연구」,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2006.
- 김형술, 「사천 이병연의 시문학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6.
- 문성대, 「『천예록』의 이본과 서사방식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6.
- 박재홍, 「매월당 김시습의 영물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6.
- 배종석, 「애국계몽기 한시에 대한 일연구-『대한매일신보』 소재 한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6.
- 백승호, 「변암 체제공 문학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안나미, 「월사 이정구의 『임진피병록』에 관한 고찰」,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오주학, 「우담 정시한 『산중일기』의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우지영, 「한문학 작가의 비평사적 검토-이제현·장유·김창협을 중심으로」,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윤유미, 「『허생전』에 나타난 풍자성과 사상 연구」, 순천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이경성, 「송강 정철의 송강집 습유 한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이국진, 「이학규의 현실인식과 시세계」,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이기현, 「조희룡 소품문 연구-척독소품과 제화소품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이남면, 「동주 이민구의 생애와 시세계」,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이미선, 「금대 이가환의 산문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승희, 「조선후기 여성 기행문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신영, 「방산 윤정기의 회고시에 대한 고찰」,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원상, 「『금오신화』에 나타난 제사상과 현실 비판의식 연구」,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은영, 「최자의 『삼도부』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정원, 「지천 최명길 한시 연구-『북비수창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이현주, 「『천예록』 소재 신이담의 서사와 미적 특질」,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정기민, 「송산 권재규의 학문성향과 소사동유에 대한 연구」,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정영실, 「발해와 일본에 있어서의 한시문학의 전개와 교류에 관하여」,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정은주, 「낙화생 이학규의 산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조상현, 「『금강삼매경』의 문학적 텍스트로서의 가치와 의미」, 울산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조양원, 「白洲 李明漢의 한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조형기, 「조간 권문해의 학문성향과 시세계」,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주병욱, 「우암 송시열의 제영시 연구」, 청주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천금매, 「『해린척소』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6.
- 하지영, 「임숙영의 <술회> 연구-17세기 초의 문단 풍경과 관련하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6.
- 황미선, 「누정연작제영 <식영정 20영>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06.
- 황용수, 「신재 최산두 연구」,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2006.
- 강민지, 「이옥의 『봉성문여』 연구-풍속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고미숙, 「<주생전>의 창작의도 연구」, 수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공영훈, 「의탁전 우언의 글쓰기 양상」,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구현희, 「진택 신광하의 생애와 문학」,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수연, 「백암 김늬의 삶과 시세계」, 안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여운, 「『매화유고』 해제 및 번역」,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윤아, 「〈정시자전〉 연구-서술사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정규, 「유한준의 문학관과 작품세계」,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정희, 「한문소품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여성의 가치관」,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주현, 「『삼해지』의 서술양상과 서술시각」,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남운덕, 「남야 박순경의 삶과 시세계 연구」, 안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류시자, 「매월당 김시습의 선시 연구-불교사상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박여자, 「이옥의 <남정집편>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변수남, 「변계량의 문학 연구」, 조선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송미현, 「다산 정약용의 고시에 나타난 주체사상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심수연, 「매월당 한시에 나타난 이미지와 상상력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우현정, 「영계 이견창의 장편한시에 관한 일고찰」,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유효진, 「『열하일기』의 우언 고찰」,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상진, 「〈최척전〉 연구-이본 현황 및 서사적 특징」,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준희, 「도은 이승인의 시문학 연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향주, 「〈최척전〉 연구-설화 <홍도>와의 대비를 중심으로」, 안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현정, 「이매창과 황진이 문학의 비교 연구」, 건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임미경, 「존재 위백규의 시가에 나타난 18세기 말 향촌 사족의 의식」, 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정소영, 「『어우야담』에 나타난 인물유형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조지향, 「『삼강행실도』 열녀편이 조선 후기 열녀전에 끼친 영향」,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주영선, 「『제정집』 해제 및 번역」,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진영호, 「김운초 시문학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최성희, 「신위 소악부 연구-주체의식과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건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표보영, 「소충 홍유손의 시세계-도교적 성향과 신분의식을 중심으로」,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한두희, 「다산의 <하일대주> 시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허현주, 「동주 이민구의 『당울광선』 연구」,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4. 학술지 논문

##### (1) 특집·기획 논문

『**고전문학연구**』29, ‘한국문학사에 있어서 소수집단 문학의 존재와 위상’, 한국고전문학회, 2006.

- 김홍규, 「소수집단 문학과 한국문학사의 전망」.
- 안동준, 「방외인문학의 재인식」.
- 김경미, 「소수자 문학으로서의 고전여성문학의 성격과 그 의미」.
- 한영규, 「증인층 전기집 『호산외기』의 성격과 위상」.
- 김승룡, 「김택영의 송도 복원 작업의 의미-방법으로서의 디아스포라」.
- 김경숙, 「서얼문학의 위상-소외의 문학에서 선구적 문화 담당층으로」.
- 박애경, 「‘소수자 문학’으로서의 기녀문학」.
- 김현선, 「민중들의 문학과 주류문학의 거리-서울 지역 만신의 문학사적 기여」.

『**국문학연구**』14, ‘한국문학과 일상적 삶 (Ⅱ~Ⅲ)’, 서울대 국문학회, 2006.

- 정진희, 「제주도 신화에 나타난 ‘신화적 일상’의 특성과 경험의 신화화 양상」.
- 김동준, 「한시에 나타난 일상의 의의와 역할」.
- 박경주, 「18~19세기 사대부 가사에 나타난 일상성의 양상-노년, 여성, 가족의 코드를 중심으로」.
- 정충권, 「판소리 문학에 나타난 일상성」.

김남기, 「일기 등 잡기에 나타난 조선후기 문인의 일상과 의미」.  
 한길연, 「대하소설의 '일상 서사'의 미학-일상과 탈일상의 줄타기」.  
 신재홍, 「신라 귀족의 사랑과 향가의 일상성」.

**『국학연구』9, '영·남 사림의 학문과 실천의식 비교연구', 한국국학진흥원, 2006 가을·겨울.**

이병휴, 「16세기 정국의 추이와 호남·영남의 사림」.  
 김기현, 「사림과 실학자들의 실천정신과 그 굴절」.  
 한형조, 「왜 퇴계-고봉 논쟁인가」.  
 이영춘, 「고산 윤선도의 학문과 예론」.  
 김형수, 「갈암 이현일의 이학과 현실인식-반계 유형원과의 관련 및 비교를 중심으로」.  
 이욱, 「18세기 영·호남 성리학자의 경세론-이상정과 위백규의 교육 및 과거제 개혁안을 중심으로」.  
 조성산, 「18세기 영·호남 유학의 학맥과 학풍」.  
 박학래, 「19세기 호남 성리학의 전개와 특징-노사 기정진과 노사학파를 중심으로」.  
 권오영, 「19세기 영남 이학의 전개와 그 실천적 성향」.

**『대동문화연구』55, '동아시아 중세사회의 금석문'·'근대문명과 산강 변영만', 대동문화연구원, 2006. 9.**

조동원, 「금석문의 역사와 자료적 가치」.  
 허홍식, 「고려 불교금석문의 특성과 정리방향」.  
 김용선, 「고려시대 묘지명 문화의 전개와 그 자료적 특성」.  
 趙力光, 「중국의 비각 현황 연구」.  
 千千和到, 「일본의 금석문 연구 현황」.  
 임형택, 「변영만의 글쓰기 형식과 문학사상-한국문학사 근대의 한 풍경」.  
 최기영, 「1910년대 변영만의 해외행적」.  
 류준필, 「변영만의 문예론과 그 사상적 기저」.  
 한영규, 「변영만의 근대문명 비판-〈관생록〉을 중심으로」.  
 김진균, 「변영만의 문장관과 자득의 논리」.

**『대동문화연구』56, '여행기에 나타난 한국', 대동문화연구원, 2006. 12.**

Milan Hejtmanek, 「미지로의 향해-15세기 조선의 삼동도로의 향해」.  
 宮嶋博史, 「최부 『표해록』의 日譯 『당도행정기』에 대하여-강호시대 일본유학자의 동아시아관과 그 딜레마」.  
 Boudewijn Walraven, 「내키지 않은 여행자들-헨드릭 하멜과 그의 동료들의 관찰에 대한 해석의 변화」.  
 임형택, 「다산학단에서 해양으로 학지의 열림-이강희의 경우」.  
 James H. Grayson, 「영국 해군 장교 바질 홀의 1816년 동아시아 항해기」.  
 박로자, 「착한 천성의 아이와 같은 저들-1880~1900년대의 러시아 탐험가들의 한국 관련 기록에서의 오리엔탈리즘적 (허위)인식의 스펙트럼」.

**『대동한문학』25, '김정희'·'이상정', 대동한문학회, 2006. 12.**

박철상, 「추사 김정희의 저작 현황 및 시문집 편간에 대하여」.  
 이철희, 「추사 시에서 '數'의 활용과 그 미적 의미」.  
 김윤조, 「추사 김정희 산문 연구」.  
 정혜린, 「김정희 예술론-그 지적 기원과 체계에 관하여」.  
 김병기, 「추사 서예의 '한국성' 試探-추사 서론에 나타난 오독과 오역에 대한 澄清을 겸하여」.  
 김현권, 「추사 김정희의 회화관 형성과 변화-시문과의 관계와 청대 화론의 수용을 중심으로」.  
 박현규, 「청 문사의 김정희 <세한도> 감상과 眞迹本 밖 제찬시」.  
 이상하, 「한국 성리학 주리론의 발전 상에서의 大山 李象靖-寒洲 李震相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전병철, 「대산 이상정의 이기·심성론」.  
 김정동, 「대산 이상정 시에 나타난 도학적 사유」.

『동방한문학』30, ‘樂齋 徐思遠 사상과 문학’, 동방한문학회, 2006. 6.

- 서수생, 「낙재 서사원 선생의 행적과 의병활동」.
- 손홍철, 「낙재 서사원의 실천유학」.
- 남재철, 「낙재 서사원의 학문 연원과 매화시」.
- 이의강, 「낙재 서사원의 <동유일록>에 나타난 서술특징과 성리학적 인간상」.
- 강민구, 「낙재 서간을 통해 본 17세기 영남 서간의 특징」.
- 박영호, 「『낙재선생일기』 고구」.
- 조창록, 「『낙재선생문집』의 판본에 대한 일고찰」.

『동방한문학』31, ‘한국한문학 산문의 전개와 발전 양상’, 동방한문학회, 2006. 12.

- 심경호, 「한문산문 연구에 관한 몇 가지 제안」.
- 김중철, 「한문문체 연구의 회고와 전망」.
- 송혁기, 「논설류 산문의 문체적 특성과 작품양상」.
- 김영주, 「서·발 전개 양상의 특징적 국면(1)」.
- 이군선, 「증서류의 특징과 발전양상」.
- 강민구, 「한국한문학 잠명의 특징과 전개양상」.
- 김윤조, 「서독류의 특징과 조선후기의 양상」.
- 최식, 「주의류 산문의 특징과 전개양상」.
- 원주용, 「조령류 산문의 관한 연구」.
- 이은영, 「애제문의 특징과 변천과정」.
- 김철범, 「한국 잡기류 산문의 특성과 양상」.
- 황의렬, 「비지류의 특징과 변천양상」.

『역사와현실』62, ‘이색의 삶과 생각’, 한국역사연구회, 2006. 12.

- 박종기, 「총론-텍스트 읽기의 새로움과 어려움」.
- 도현철, 「이색의 서연 강의」.
- 김인호, 「이색의 자아의식과 심리적 갈등」.
- 채웅석, 「『목은시고』를 통해서 본 이색의 인간관계망」.
- 남동신, 「목은 이색과 불교 승려의 시문 교류」.

『영남학』9, ‘고문서의 조사, 정리와 사료적 가치’,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6. 6.

- 이수진, 「고문서의 조사, 정리와 사료적 가치」.
- 전경목, 「고문서의 조사와 정리 방법론」.
- 양진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서 조사 정리의 현황과 과제」.
- 홍성덕, 「호남지역 고문서 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 김형수, 「한국국학진흥원 고문서 정리의 성과와 과제」.
- 김준형, 「경남 서부지역 고문헌의 조사상황과 문제점」.

『영남학』10, ‘고문서 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6. 12.

- 박병호, 「고문서 연구의 현황과 과제」.
- 김현영, 「관부문서 연구의 현황과 과제」.
- 정진영, 「춘락문서 연구현황과 과제」.
- 김 혁, 「증빙의 개념에서 본 증빙문서 연구의 과제」.
- 문숙자, 「조선시대 재산상속문서의 연구현황과 과제-가족사 연구의 진전을 위한 제언」.
- 홍윤표, 「한글 고문서의 연구현황과 과제」.
- 박성중, 「이두 연구 시기별로 본 고문서의 활용」.

김경숙, 「고문서를 활용한 생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가정 및 친족생활을 중심으로」.

**『진단학보』102, ‘목은 특집’, 진단학회, 2006.**

고혜령, 「『목은집』을 통해 본 이색의 불교와의 관계」.  
 도현철, 「이색의 경학관과 그 지향」.  
 마종락, 「목은 이색의 생애와 역사인식」.  
 여운필, 「목은시의 다양한 지향과 면모」.  
 이익주, 「『목은집』의 간행과 사료적 가치」.

**『한국문화연구』10, ‘한국인의 해외체험과 문화수용’,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6. 6.**

김복순, 「최치원의 해외체험과 문화수용」.  
 사토아쓰시, 「대각국사 의천의 입속-敎와 毘의 측면에서」.  
 김성기, 「이재현의 시에 나타난 중국 문화 수용」.  
 서인석, 「최부 『표해록』과 사립과 관료의 중국체험」.  
 김경미, 「소현세자의 ‘청’ 체험과 문화 수용」.  
 백옥경, 「역관 김지남의 일본체험과 일본인식-『동사일록』을 중심으로」.  
 김경숙, 「『승사록』의 서술방식과 사행록으로서의 의의」.

**『한국시가연구』21, ‘한국시가의 동아시아적 지평’, 한국시가학회, 2006.**

조동일, 「한시에 대응한 민족어시의 운율」.  
 천본호사, 「동아시아 시학 구축을 위해-음수율이라는 숙명」.  
 사사위, 「문인시가 전통과 중국의 실용주의 시론」.  
 황혁진, 「亂이라는 극적 상황에 대한 시적 형상화 방식-陳興義의 世亂詩의 寫法에 대하여」.  
 이연숙, 「향가와 『만엽집』 작품의 불교 형상화 방식 비교 연구」.  
 이도흠, 「시조와 하이쿠의 미학에 대한 비교 연구-扈錫均의 시조와 松尾芭蕉의 하이쿠를 중심으로」.  
 손오규, 「한중 산수문학에서의 산수형상화」.

**『한국실학연구』11, ‘조선후기 달성서씨가의 학풍과 실학’, 한국실학학회, 2006. 6.**

김대중, 「화해에 대한 서유구의 감수성과 그 의미」.  
 김문식, 「18세기 서명응의 세계지리 인식」.  
 박권수, 「서명응·서호수 부자의 과학활동과 사상-천문역산 분야를 중심으로」.  
 안대회, 「임원경제지를 통해 본 서유구의 이용후생학」.  
 이봉호, 「서명응의 선친학, 서양천문학 이해의 논리-서호수·홍대용과 비교를 중심으로」.  
 조창록, 「풍석 서유구의 <의상경제책>에 대한 일고찰-그의 문예론과 치재관의 한 면모」.

**『한국실학연구』12, ‘실학·일상·문화-실학은 인간의 삶에 어떻게 다가섰는가’, 한국실학학회, 2006. 12.**

신익철, 「이옥 문학의 일상성과 사물인식」.  
 심경호, 「실학시대의 여행」.  
 심우경, 「조선후기 지식인들이 선호한 조경식물과 조경문화」.  
 허시명, 「실학과 술」.  
 정순우, 「실학과 교육론의 ‘근대성’ 문제-담헌과 연암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37, ‘한문학연구의 문화론적 방향’ · ‘한국한문학과 문화콘텐츠의 만남’, 한국한문학회, 2006. 6.**

이동환, 「한문학연구의 회고와 방향」.  
 임형택, 「한문학 유산과 그 문화론적 인식 방향」.  
 김시업, 「한문학 연구의 방향과 ‘민족」」.  
 진재교, 「한문의 서사전통과 근대계몽기 신문의 서사-서사의 근대적 모색」.

- 황위주, 「한국한문학 연구에 있어서 동아시아 담론의 의미」.
- 강명관, 「한문학 연구와 일상」.
- 임유경, 「한국한문학의 여성문학적 성과와 전망」.
- 이종묵, 「산수와 생태와 문학」.
- 김용옥, 「한문 해석 인식론과 한국 문화콘텐츠의 발양」.
- 이지양, 「한문학에 나타난 우리 음악과 무용」.
- 최영미, 「어려운 국악, 절반의 책임은 한문」.
- 이승수, 「한문학과 다큐멘터리의 점점 가능성 탐색-연행로를 중심으로」.
- 남성우, 「역사 다큐멘터리와 한문학의 만남-KBS 역사스페셜을 중심으로」.
- 신익철, 「아담 문학의 활용과 TV 드라마, 영화의 창조적 상상력-〈어우야담〉과 〈왕의 여자〉, 〈황진이〉의 인물형상을 중심으로」.
- 안영동, 「영화, TV 드라마 사극과 한문학」.
- 고미숙, 「열하일기, 그 ‘매끄러운 공간’ 속으로-열하일기와 애니메이션의 마주침에 대한 몇 가지 단상」.
- 이정호, 「옛날이야기에서 애니메이션 소재 찾기」.

**『한국한문학연구』38, ‘한국 한문학 외연의 확장’, 한국한문학회, 2006. 12.**

- 임형택, 「『반계일고』의 고찰-실학과 실학과문학의 원류」.
- 심경호, 「한국한문문학 속의 참요-특히 민중적 대항 언론과 정치적 의제에 관하여」.
- 윤인현, 「이규보의 <굴원불의사론>에 나타난 역사의식의 문제점」.
- 조현우, 「〈화사〉의 사서 체재와 그 의미-치란의 반복 구성을 중심으로」.
- 김남기, 「조선시대 군신의 창화와 그 의미-규장각 소장 갱재축과 연운축을 중심으로」.
- 신상필, 「이서·역관 계층 소설 관련 양상의 현실적 근거와 그 실제」.
- 이병찬, 「『시경』 구조 체계화와 모순 해결 양상 연구-한국의 『시경』 국풍론을 중심으로」.

**『한문학보』15, ‘연천 홍석주의 학술과 문예’, 우리한문학회, 2006.**

- 허권수, 「연천 홍석주의 가문적 문학환경과 문학성향」.
- 최석기, 「연천 홍석주의 학문성향과 『대학』 해석의 특징」.
- 김철범, 「연천 홍석주의 <기리경>과 지리의식」.
- 최식, 「향해의 현실인식과 <춘추묵송>」.

**『한국한시연구』14, ‘16~17세기 호남 한시의 풍경’, 한국한시학회, 2006.**

- 성범중, 「16, 17세기 호남지방 원림문학의 지향과 그 변이」.
- 김종서, 「16세기 호남 시의 음영성」.
- 박병익, 「사암 박순의 당시풍 수용과 전개양상」.
- 황수정, 「미암 유희춘 문학 연구」.
- 김성기, 「17세기 한국한시사의 구도」.
- 여운필, 「동명시와 삼연시의 거리」.
- 이은주, 「17세기 인물연작시와 <五君詠>의 창작」.
- 노경희, 「허균의 중국 문단과의 접촉과 시선집 편찬 연구」.

(2) 일반 논문

- 강국주, 「<중복소선서>의 개수와 작자 문제」, 『고전문학연구』30, 한국고전문학회, 2006.
- 강민구, 「조선후기 영남사인 잠명의 내향성과 관념성-훈수·지수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26,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 강석중, 「雪峯 姜栢年の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10, 한국한시학회, 2006. 2.
- 강경화, 「16세기 유일문학의 특징」, 『동방한문학』30, 동방한문학회, 2006.

- 강혜신, 「白軒 李景奭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10, 한국한시학회, 2006. 2.
- \_\_\_\_\_, 「이 늙은이가 사는 법, 미수 허목」, 『문헌과해석』34, 문헌과해석사, 2006 봄.
- 구본현, 「권필과 이안눌의 교유와 문학활동」, 『국문학연구』14, 서울대 국문학회, 2006.
- \_\_\_\_\_, 「漫浪 黃旣의 생애와 문」, 『한국한시작가연구』10, 한국한시학회, 2006. 2.
- 구영진, 「변화에 대한 홍길주의 사유-회아서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24, 열상고전연구회, 2006. 12.
- 구지현, 「이언진과 일본 문사 교류의 의미」, 『열상고전연구』23, 열상고전연구회, 2006. 6.
- 권문봉, 「율곡의 교육개혁론 고찰-〈학교모범〉을 중심으로」, 『한문학보』15, 우리한문학회, 2006.
- 권정원, 「원경도와 이덕무 문학이론의 同異點 고찰」, 『동양한문학연구』22, 동양한문학회, 2006. 2.
- 권정은, 「유거와 탐승, 자연미의 상보적 기반」, 『고전문학과교육』1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8.
- 권진호, 「수곡 권보의 학문경향과 시인정신-경세의식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22, 동양한문학회, 2006. 2.
- 권혁명, 「16세기 석천 임억령과 식영정 시단-문학적 교유양상과 시단 형성을 중심으로」, 『한문학보』15, 우리한문학회, 2006.
- \_\_\_\_\_, 「송강 시세계의 배경연구-송강의 현실지향 시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25, 동양고전학회, 2006. 12.
- 권혁진, 「고려전기에서 중국문명 수용과 귀화한인의 역할」, 『중국문학연구』32, 한국중문학회, 2006. 6.
- \_\_\_\_\_, 「김황원의 문학세계」, 『온지논총』15, 온지학회, 2006. 12.
- \_\_\_\_\_, 「한시를 통한 생태교육 연구-이규보의 한시를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16, 한자한문교육학회, 2006.
- 김건곤, 「석 식영암의 正體에 대한 재론」, 『대동한문학』25, 대동한문학회, 2006. 12.
- 김경록, 「조선시대 사행과 사행기록」, 『한국문화』3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12.
- 김경미, 「주자가례의 수용과 17세기 혼례의 양상-친영례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24, 동양고전학회, 2006. 6.
- 김경숙a, 「17세기 후반 유생 이필익의 유배생활」, 『한국문화』3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12.
- 김경숙b, 「자하 신위의 아내와 딸에 대한 인식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 김경일, 「식민지 시기 신여성의 미국 체험과 문화 수용-김마리아·박인덕·허정숙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11,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6.
- 김광섭, 「17-18세기 『麗文選集』 류의 편찬 양상과 그 영향에 대하여-서유체 변려문의 애호 현상을 중심으로」, 『어문논집』54, 민족어문학회, 2006.
- \_\_\_\_\_, 「남공철의 미적 인식과 아취의 생활」, 『문헌과해석』35, 문헌과해석사, 2006 여름.
- 김광욱, 「조선후기 서예시 연구」, 『한문학논집』24, 근역한문학회, 2006. 11.
- 김근태, 「李德懋 文集 所載 說話의 理念과 小品文의 性格 研究」, 『고전문학과교육』11,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2.
- 김근태, 「西陂 柳禧의 생애와 學詩 門路」, 『온지논총』15, 온지학회, 2006. 12.
- 김남기, 「南坡 洪宇遠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10, 한국한시학회, 2006. 2.
- \_\_\_\_\_, 「일기 등 잡기에 나타난 조선후기 문인의 일상과 의미」, 『국문학연구』14, 서울대 국문학회, 2006.
- \_\_\_\_\_, 「『관동십경』의 제작과 시세계 연구」, 『한국한시연구』14, 한국한시학회, 2006. 10.
- 김남이, 「17세기 사대부의 『주자가례』에 대한 인식과 일상에서의 예 실천-우암 송시열의 경우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29-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여름.
- \_\_\_\_\_, 「임윤지당의 한문 글쓰기 방식과 그 의미-조선후기 여성의 학문적·문학적 토양에 대한 고찰로서」, 『동양고전연구』, 東洋古典學會, 2006.
- 김남형, 「창암 이삼만의 서론」, 『동양한문학연구』23, 동양한문학회, 2006. 8.
- 김대현, 「小波와 雪舟의 생애와 시문학 연구」, 『고시가연구』17, 한국고시가학회, 2006. 2.
- 김동석, 「이옥의 <매화유사>의 비평과 그 서사적 의미」, 『한국어문학연구』47,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6. 8.
- \_\_\_\_\_, 「유언호의 『연행록』과 조환의 『연행일기』에 대한 고찰-대청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5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12.
- 김동준, 「이불과 베개에 새긴 잠언-枕銘과 衾銘」, 『문헌과해석』35, 문헌과해석사, 2006 여름.
- \_\_\_\_\_, 「한시에 나타난 일상의 의미와 역할」, 『국문학연구』14, 서울대 국문학회, 2006.
- 김문식, 「서유구가 편찬한 할아버지의 저술」, 『문헌과해석』34, 문헌과해석사, 2006 봄.
- 김보경, 「남옥의 『일관기』 연구-대상·보기·쓰기 문제를 축으로」, 『한국고전연구』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 김봉남, 「다산 수학기 시에 나타난 내면의식의 체양상-수학기 전기(1765~1782) 시에 대하여」, 『어문논집』53, 민족어

문학회, 2006. 4.

- \_\_\_\_\_, 「다산의 장기 유배시에 함축된 내면의식의 제양상」, 『한국한문학연구』38, 한국한문학회, 2006. 12.
- 김상일, 「괴암 김수온 산문의 문예적 특질」, 『한국어문학연구』47,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6. 8.
- 김새미오, 「매계 이한우의 시문학 일고」, 『영주어문』11, 영주어문학회, 2006. 2.
- \_\_\_\_\_, 「연천 홍석주의 연행과 그 의미」, 『동방한문학』30, 동방한문학회, 2006.
- 김석태, 「兪菴 惠藏의 사상적 지향과 시문학의 양상」, 『고시가연구』18, 한국고시가학회, 2006. 8.
- 김성기, 「金得臣의 시 인식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10, 한국한시학회, 2006. 2.
- 김성룡, 「천명론의 등장과 도문일치의 문학사상」, 『고전문학과교육』12, 한국고전문학과교육학회, 2006. 8.
- 김성연, 「白洲 李明漢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10, 한국한시학회, 2006. 2.
- 김승룡, 「心遠子 韓在濂의 학문과 문학에 대하여-18세기 송도지식인의 한 측면」, 『동양한문학연구』22, 동양한문학회, 2006. 2.
- 김 영, 「연암을 읽는 두 가지 코드, 『사기』와 『장자』」, 『민족문학사연구』30, 민족문학사학회, 2006. 4.
- 김영진, 「조선후기 시가 관련 신자료(1)-전만재, 반치, 이한진 등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20, 한국시가학회, 2006.
- 김용선, 「고려시대 묘지명 문화의 전개와 그 자료적 특성」, 『대동문화연구』55,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 김용철, 「『피생몽유록』 연구」, 『동양한문학연구』23, 동양한문학회, 2006. 8.
- 김용태, 「옥수 조면호의 유희적 시정신」, 『한문학보』15, 우리한문학회, 2006.
- \_\_\_\_\_, 「이시원의 사의식과 이용후생의 논리」, 『한국실학연구』12, 한국실학학회, 2006.
- 김우정, 「유몽인 산문에 있어서 자득의 의미와 실현양상」, 『동양학』40,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6.
- \_\_\_\_\_, 「조선 중기 복고적 산문의 두 경향-취립과 유몽인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37, 한국한문학회, 2006. 6.
- 김윤조, 「金箕懋 詩 연구-새 자료 『雲嶠詩集』의 소개」, 『대동한문학』24, 대동한문학회, 2006. 6.
- 김재욱, 「목은 이색의 불교관」, 『동양한문학연구』23, 동양한문학회, 2006. 8.
- 김정환, 「石田 黃瑗의 향일 저항시 연구」, 『고시가연구』17, 한국고시가학회, 2006. 2.
- 김종진, 「백사 이항복 시의 몇 가지 국면들」, 『대동한문학』25, 대동한문학회, 2006. 12.
- 김주수, 「몽예 남극관 시세계 연구-음유지미의 슬픈 미감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20, 한국시가학회, 2006.
- \_\_\_\_\_, 「醇言과 정언묘선의 시학 사상」, 『한국한시연구』14, 한국한시학회, 2006. 10.
- 김준형, 「필사본 『기문』·『교수잡사』의 발견과 그 의미」, 『열상고전연구』23, 열상고전연구회, 2006. 6.
- \_\_\_\_\_, 「『천예록』의 원형재구와 향유양상 일고」, 『한국한문학연구』37, 한국한문학회, 2006. 6.
- 김진경, 「한국 사부에 나타나는 비애의 정서-조선시대 창작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동방한문학』30, 동방한문학회, 2006.
- \_\_\_\_\_, 「한국 사부에 나타나는 우연적 성격에 관한 연구」, 『한자한문교육』16, 한자한문교육학회, 2006.
- 김창호, 「성로 시세계의 연구」, 『동방한문학』30, 동방한문학회, 2006.
- 김철범, 「原泉 洪祐健 산문론의 주체적 상상력-이조 후기 산문론에서 ‘똘’의 문체와 관련하여」, 『동양한문학연구』22, 동양한문학회, 2006. 2.
- \_\_\_\_\_, 「홍길주의 꿈과 문학적 상상력」, 『문헌과해석』36, 문헌과해석사, 2006 가을.
- 김팔남, 「새로 발견된 小岳樓 이유의 가사 몇 편에 대하여-작자 고증과 창작 연대 추정을 중심으로」, 『고시가연구』18, 한국고시가학회, 2006. 8.
- 김학수, 「서계유거, 수락산 석천동」, 『선비문화』10, 남명학연구원, 2006 가을.
- 김현미, 「슬픔과 탄식 속의 지아비/아버지 되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 김현양, 「〈최척전〉, ‘희망’과 ‘연대’의 서사-‘불교적 요소’와 ‘인간에’의 의미충위에 대한 주제적 해석」, 『열상고전연구』24, 열상고전연구회, 2006. 12.
- 김현주, 「택당 이식 시에 나타난 출처의식」, 『한문학논집』24, 근역한문학회, 2006. 11.
- 김철조, 「연암의 <열녀합양박씨전> 재고-새로운 자료 소개를 겸하여」, 『대동한문학』24, 대동한문학회, 2006. 6.
- 김형섭, 「이복후 역사산문에 형상화된 인물」, 『한국어문학연구』47,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6. 8.
- 김형태, 「〈시명다식〉의 문헌적 특성과 가치 연구(1)」, 『한국시가연구』21, 한국시가학회, 2006.
- 김혜숙, 「미수 허목 시적 情懷에 대한 일고」, 『한국한시작가연구』10, 한국한시학회, 2006. 2.
- 김희자, 「현주 조찬한의 시세계-사환기의 현실인식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24, 근역한문학회, 2006. 11.



- 남미혜, 「17세기 사대부 가훈을 통해 본 가례의식-초려 이유태(1607~1684)의 정훈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24, 동양고전학회, 2006. 6.
- 남은경, 「을지문덕의 문학적 전승」, 『동양고전연구』24, 동양고전학회, 2006. 6.
- 문중앙, 「19세기의 호남 실학자 이청의 『정관편』 저술과 서양 천문학 이해」, 『한국문화』37,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6.
- 박경주, 「여말 선초 문인층과 승려층의 시가교류 현상에 대한 고찰」, 『고전문학과교육』11,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2.
- 박관규, 「우암 송시열의 <영릉지문>, 그 찬진의 과정과 표현의 특성」, 『어문논집』54, 민족어문학회, 2006.
- \_\_\_\_\_, 「우암 송시열의 기문에 형상화된 성찰과 자락의 의미」, 『동양한문학연구』23, 동양한학회, 2006. 8.
- 박동욱, 「혜환 이용휴 산문 연구」, 『은지논총』15, 은지학회, 2006. 12.
- 박명희, 「존재 위백규의 현실인식과 시적 형상화」, 『고시가연구』18, 한국고시가학회, 2006. 8.
- 박상영, 「『열하일기』에 나타난 산문 시학-〈환회기〉의 담론 구성방식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144, 국어국문학회, 2006. 12.
- 박성규, 「이인로의 시세계 소고-도가적 성향의 시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27,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 박세인, 「海錦 吳達運 시의 현실적 경향 연구」, 『고시가연구』17, 한국고시가학회, 2006. 2.
- 박수밀, 「박지원의 <환회기〉에 나타난 글쓰기 요령」, 『한문교육연구』26,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 \_\_\_\_\_, 「키 작은 천재 고집쟁이, 박제가」, 『문헌과해석』36, 문헌과해석사, 2006 가을.
- 박수천, 「東州 李敏求의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10, 한국한시학회, 2006. 2.
- 박연수, 「강화 하국학과의 ‘실심, 실학」, 『양명학』 16권, 한국양명학회, 2006.
- 박영미, 「애국계몽기에 간행된 한문학교과서에 관한 고찰」, 『한문학논집』24, 근역한학회, 2006. 11.
- 박영주, 「송강의 교유시 연구」, 『고시가연구』18, 한국고시가학회, 2006. 8.
- 박준원, 「최술의 <수사고신록>과 <수사고신여록>에 나타난 주자학의 수용양상」, 『한문교육연구』26,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 박준호, 「晩學堂 裴尙瑜의 한시에 대한 연구」, 『대동한문학』24, 대동한학회, 2006. 6.
- 박중렬, 「지방문학의 개념 범주와 연구 방향」, 『고시가연구』17, 한국고시가학회, 2006. 2.
- 박철상, 「고향당 강위가 엮은 『韓四客詩選』2」, 『문헌과해석』34, 문헌과해석사, 2006 봄.
- \_\_\_\_\_, 「반계 류형원이 엮은 『도정절집』과 그의 일민의식」, 『한국실학연구』11, 한국실학학회, 2006.
- \_\_\_\_\_, 「편지에 담긴 연암과 조정의 우정」, 『문헌과해석』34, 문헌과해석사, 2006 봄.
- 박혜진, 「정조대 문체반정의 지향과 의의-『일득록』에 나타난 정조의 문장관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37, 2006.
- 배규범, 「불교 회문시 일고찰」, 『어문연구』34-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여름.
- \_\_\_\_\_, 「草衣意恂의 茶詩 연구-다선일여의 시문학적 해명」, 『은지논총』15, 은지학회, 2006. 12.
- \_\_\_\_\_, 「허정법종의 잡체시」, 『정신문화연구』29-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봄.
- 백숙아, 「新齋 崔山斗의 시세계」, 『고시가연구』18, 한국고시가학회, 2006. 8.
- 백승호, 「『한중록』의 새로운 이본-버클리 대학 소장 『弗明弗措』」, 『문헌과해석』36, 문헌과해석사, 2006 가을.
- \_\_\_\_\_, 「변암 체제공의 문자정치」, 『진단학보』101, 진단학회, 2006. 6.
- 변중현, 「이색 한시의 풍격 연구」, 『동방한문학』30, 동방한학회, 2006.
- 서신혜, 「林象德의 <淡婆姑傳〉에 나타난 사유」, 『어문연구』34-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봄.
- \_\_\_\_\_, 「화식전 수용의 양태와 경향」, 『한국문화』3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12.
- 서정화, 「이규보의 논변류 산문 연구」, 『한국한문학연구』38, 한국한학회, 2006. 12.
- 서한석, 「이항복 한시의 시사적 성격에 관한 소고」, 『대동한문학』24, 대동한학회, 2006. 6.
- 서현경, 「『과정록』 이본 서문의 상이성에 관한 연구-전남대본 『열하일기』의 개작 및 박종채와 관련하여」, 『열상고전연구』23, 열상고전연구회, 2006. 6.
- 성범중, 「고전문학과 지역성의 문제」, 『국어국문학』144, 국어국문학회, 2006. 12.
- \_\_\_\_\_, 「龜谷 崔奇男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10, 한국한시학회, 2006. 2.
- 손계영, 「처지는 비록 다르나 뜻은 끝내 함께하리니-유계와 윤선거의 우정」, 『문헌과해석』35, 문헌과해석사, 2006 여름.
- 손병국, 「<원앙도> 연구」, 『한국어문학연구』47,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6. 8.

- 손유경, 「모재 김안국의 교유시 연구」, 『한문교육연구』27,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 손혜리, 「성해응의 글쓰기 양상과 그 의미-서사양식의 교섭양상을 중심으로」, 『한문학보』15, 우리한문학회, 2006.
- \_\_\_\_\_, 「研經齋 成海應의 敘事漢詩에 대하여-형상화 특징과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24, 대동한문학회, 2006. 6.
- 송성욱, 「문화산업시대 고전문학 연구의 방향」, 『겨레어문학』36, 겨레어문학회, 2006.
- 송재소, 「한국의 실학연구와 관련하여」, 『한국실학연구』12, 한국실학학회, 2006.
- 송혁기, 「몽예 남극관의 학문과 산문비평」, 『한문학보』14, 우리한문학회, 2006.
- \_\_\_\_\_, 「조금섭의 김택영 제가문평 비판과 그 비평사적 의의」, 『동양한문학연구』22, 동양한문학회, 2006. 2.
- 신두환, 「조선 사립의 시가에 나타난 ‘졸박’의 문예미학」, 『한국한문학연구』38, 한국한문학회, 2006. 12.
- \_\_\_\_\_, 「한국 한시의 언어 연구-〈문자유집〉을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16, 한자한문교육학회, 2006.
- 신상필, 「『전등신화』의 향유와 그 저변」, 『한문교육연구』26,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 신승훈, 「於 柳夢寅의 古文論에 나타난 六經 중심의 視角」, 『동양한문학연구』22, 동양한문학회, 2006. 2.
- 신영주, 「17세기 문예의 새로운 경향과 낭선군 이우」, 『한문교육연구』27,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 \_\_\_\_\_, 「양란 이후 문예 취미의 분화와 그 전개양상」, 『동방한문학』31, 동방한문학회, 2006.
- 신은경, 「윤선도에게 있어서의 ‘이상향’의 의미 작용 연구-두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57, 한국언어문학학회, 2006. 6.
- 신장섭, 「〈관서악부〉를 통해 본 석복의 역사인식 고찰」, 『어문연구』34-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가을.
- 심경호, 「고려후기 시가의 계통과 형성과정 고찰」, 『한국문화』37,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6.
- \_\_\_\_\_, 「성호학파의 계보」, 『성호학보』2, 2006. 2.
- \_\_\_\_\_, 「한국, 중국의 한시와 자연」, 『민족문화연구』4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6.
- \_\_\_\_\_, 「지천유집」과 별본 『지천속집』(잔본)에 수록된 최명길의 증답수창시에 대하여」, 『한국시가연구』20, 한국시가학회, 2006.
- 안대희, 「조선의 다빈치, 정철조」, 『문헌과해석』36, 문헌과해석사, 2006 가을.
- \_\_\_\_\_, 「조선후기 이종 언어 텍스트와 그에 관한 논의들」, 『대동한문학』24, 대동한문학회, 2006. 6.
- \_\_\_\_\_, 「평양기생의 인생을 묘사한 소품서 『녹과잡기』 연구」, 『한문학보』14, 우리한문학회, 2006.
- 안득용, 「農淵 山水遊記 研究」, 『동양한문학연구』22, 동양한문학회, 2006. 2.
- 안말숙, 「金壽恒의 詩文學研究」, 『동양한문학연구』22, 동양한문학회, 2006. 2.
- 안세현, 「문체반정을 둘러싼 글쓰기와 문체 논쟁-정조의 문장의식을 통해 본 박지원과 이옥의 글쓰기 태도 및 문체」, 『어문논집』54, 민족어문학회, 2006.
- 안순태, 「금릉 남공철의 생애」, 『문헌과해석』35, 문헌과해석사, 2006 여름.
- 안영길, 「17세기 산문 발달의 양상에 관한 연구-실기문과 고문을 중심으로」, 『양명학』17, 한국양명학회, 2006.
- 안외순, 「유길준의 해외체험과 민주주의 유교적 수용」, 『한국문화연구』11,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6.
- 양우뢰, 「燕行錄與明清中韓關係史研究」, 『열상고전연구』23, 열상고전연구회, 2006. 6.
- 양원석, 「정조 <문자재문>에서의 문자학체설에 대한 논의(1)」, 『민족문화연구』4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6.
- 에드워드 슐츠, 「안정복과 『동사강목』-고려무신정권에 관한 그의 견해에 대한 비평」, 『한국실학연구』11, 한국실학학회, 2006.
- 여운필, 「東溟 鄭斗卿의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10, 한국한시학회, 2006. 2.
- 오대혁, 「나팔여초 전기소설의 형성 문제-불교계 전기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46,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6. 2.
- 우경섭, 「송시열의 화이론과 조선중화주의의 성립」, 『진단학보』101, 진단학회, 2006. 6.
- 우승순, 「청량산 유산문학에 나타난 공간인식과 그 변모 양상-주세붕과 이황의 작품을 중심으로」, 『어문연구』34-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가을.
- 원주용, 「목은 이색의 기에 관한 고찰」, 『대동한문학』24, 대동한문학회, 2006. 6.
- \_\_\_\_\_, 「삼봉 정도전 산문의 문예적 특징」, 『한문학보』14, 우리한문학회, 2006.
- 원창애, 「물천 선생 후손가의 고문서 분석-특히 간찰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22, 남명학연구원, 2006. 12.
- 유경섭, 「송시열의 도통론과 문묘이정 논의」, 『한국문화』37,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6.
- 유광화, 「南冥 退溪詩韻探討」, 『남명학연구』22, 남명학연구원, 2006. 12.

- 유권석, 「〈국성전〉 연구」, 『어문연구』13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6.
- 유년석·양동식, 「金笠詩에 나타난 동식물 고찰」, 『고시가연구』17, 한국고시가문학회, 2006. 2.
- \_\_\_\_\_, 「새로 발굴한 김병연의 과체시 검토」, 『고시가연구』18, 한국고시가문학회, 2006. 8.
- 유동재, 「『문결』의 창작론과 그 문론사적 의의」, 『한국한문학연구』38, 한국한문학회, 2006. 12.
- 유수양, 「松岩 羅緯素와 岫雲亭文學」, 『고시가연구』18, 한국고시가문학회, 2006. 8.
- 유영봉, 「〈비해당사십팔영〉의 성립배경과 체제-〈소상팔경도시권〉과 〈몽유도원도〉의 제작과 관련하여」, 『한문학회』15, 우리한문학회, 2006.
- 유호진, 「종포 시에 나타난 생명본질 및 생명육구에 대하여」, 『동양한문학연구』23, 동양한문학회, 2006. 8.
- 윤상림, 「목은 이색의 누정기 기사의 기술방식」, 『동양고전연구』25, 동양고전학회, 2006. 12.
- \_\_\_\_\_, 「익제 이계현 묘지명의 서술자 변이 양상」, 『동양고전연구』24, 동양고전학회, 2006. 6.
- 윤현연, 「한국의 성경문화론과 풍교론에 끼친 『논어』와 『논어집주』의 영향」, 『어문연구』34-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여름.
- 윤재민, 「〈동선기〉의 장르적 성격」, 『민족문화연구』46,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2006.
- 윤재환, 「다산의 미발굴 시 <效誠齋> 48수 분석」, 『한국한시연구』14, 한국한시학회, 2006. 10.
- \_\_\_\_\_, 「초원 이충익의 문학과 형상화」, 『양명학』17, 한국양명학회, 2006.
- 윤 정, 「영조의 『성학집요』 진강과 정책적 활용」, 『한국문화』3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12.
- 윤지훈, 「삼포 안석경의 문장관과 비평의 실제-목은, 간역, 계곡의 산문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26,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 \_\_\_\_\_, 「삼포 안석경의 인물론과 북벌에 대한 인식」, 『한문교육연구』27,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 \_\_\_\_\_, 「희와 안중환의 문학론에 대한 연구」, 『한문학회』15, 우리한문학회, 2006.
- 윤재근, 「한문소설에 나타난 시인의 양상-근대적 리얼리티의 형성과 관련하여」, 『어문논집』53, 민족어문학회, 2006. 4.
- 윤호진, 「南冥의 實用主義 文學觀과 그 作品世界」, 『남명학연구』22, 남명학연구소, 2006. 12.
- \_\_\_\_\_, 「택당의 이재시 비평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23, 열상고전연구회, 2006. 6.
- 이강석, 「목은 산문의 주술어록지기 소고」, 『한문학회』14, 우리한문학회, 2006.
- 이강열, 「오음 윤두수의 누정시에 나타난 시공간 인식」, 『한문학논집』24, 근역한문학회, 2006. 11.
- 이강옥, 「김혜 여성과 이학규의 시세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 이경보, 「존재론과 윤리론의 갈등-홍대용 사상의 철학적 기초」, 『한국실학연구』12, 한국실학학회, 2006.
- 이경수, 「申翊聖의 춘천 여행과 시적 표현 양상」, 『한국한시작가연구』10, 한국한시학회, 2006. 2.
- 이경하, 「15세기 최고의 여성 지식인, 인수대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 이광호, 「퇴계 이황의 심학적 이학이 다산 정약용의 도덕론 형성에 미친 영향」, 『한국실학연구』12, 한국실학학회, 2006.
- 이구의, 「龍巖 朴雲 시에 나타난 정신세계」, 『은지논총』15, 은지학회, 2006. 12.
- 이국진, 「이학규 시에 나타나는 현실인식과 내면의식」, 『한국한시연구』14, 한국한시학회, 2006. 10.
- 이대형, 「변중운의 산문연구」, 『동양한문학연구』23, 동양한문학회, 2006. 8.
- 이동하, 「李後白의 七言古詩에 드러난 儒敎思想의 詩의 形象化」, 『고시가연구』18, 한국고시가문학회, 2006. 8.
- 이병순, 「조선후기 반의고 문학론 연구-법고에 대한 비판과 법고창신」, 『한문학논집』24, 근역한문학회, 2006. 11.
- 이상일, 「김윤식의 개화자강론과 영선사 사행」, 『한국문화연구』11,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6.
- 이상주, 「조선후기 산수평론에 대한 일고찰-화양구곡을 중심으로」, 『한문학회』14, 우리한문학회, 2006.
- 이상필, 「조선말기 남명학파의 남명학 계승 양상」, 『남명학연구』22, 남명학연구소, 2006. 12.
- 이숙인, 「조선시대 교육의 젠더 지형도」, 『정신문화연구』29-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봄.
- \_\_\_\_\_, 「『주자가례』와 조선 중기의 제례문화-결속과 배제의 정치학」, 『정신문화연구』29-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여름.
- 이승복, 「〈定州歌〉의 구조와 작가의식」, 『고전문학과교육』11,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2.
- 이승수, 「〈야출고북구기〉의 산문미 재론」, 『한국한문학연구』38, 한국한문학회, 2006. 12.
- \_\_\_\_\_, 「누이의 죽음, 잔영, 그림-오뇌 형상의 전변과 관련하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 \_\_\_\_\_, 「연행로상의 공간 탐색, 봉황산성-안시성설과 관련하여」, 『정신문화연구』29-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여름.

- 이승호, 「敬一의 문학에 나타난 道仙의 傾向과 그 의미」, 『어문연구』34-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봄.
- 이원걸, 「잡고담에 반영된 임매의 여성관」, 『한문학보』14, 우리한문학회, 2006.
- \_\_\_\_\_, 「제산 김성탁의 생애와 <아유가>」, 『한문교육연구』27,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 \_\_\_\_\_, 「학림 권방의 생애와 시」, 『동방한문학』31, 동방한문학회, 2006.
- \_\_\_\_\_, 「과수추 소재 평어의 웃음 유발 기능」, 『대동한문학』24, 대동한문학회, 2006. 6.
- 이월영, 「石亭 李定稷의 문필생활과 시 특성 고찰」, 『고시가연구』17, 한국고시가문학회, 2006. 2.
- 이은주, 「敬窩 金佺의 시 경향 연구」, 『한국한시작가연구』10, 한국한시학회, 2006. 2.
- 이의강, 「오산 차천로의 한시에 나타난 '회재불우'의 정조」, 『한문교육연구』26,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 \_\_\_\_\_, 「이행의 화운시집 『화주문공남악창수집』 연구-『남악창수집』에 대한 문헌학적 고찰을 겸하여」, 『한문학보』14, 우리한문학회, 2006.
- 이의철, 「안건의 <몽유도원도>에 대한 연구」, 『온지논총』14, 온지학회, 2006. 6.
- 이재숙, 「영천자 신잠의 삶과 시세계」, 『동양한문학연구』23, 동양한문학회, 2006. 8.
- 이정화, 「서에 유성룡의 설리시 연구」, 『영남학』9,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6.
- \_\_\_\_\_, 「서애의 學退溪 실천과 시세계의 표출양상」, 『한국한시연구』14, 한국한시학회, 2006. 10.
- 이종건, 「坡山酬唱詩 고찰」, 『온지논총』14, 온지학회, 2006. 6.
- 이종묵, 「남공철과 정계산의 玉磬山莊」, 『문헌과해석』35, 문헌과해석사, 2006 여름.
- \_\_\_\_\_, 「우암 송시열의 삶과 詩」, 『한국한시작가연구』10, 한국한시학회, 2006. 2.
- \_\_\_\_\_, 「자연의 경을 담은 자연경실과 서유구」, 『문헌과해석』34, 문헌과해석사, 2006 봄.
- \_\_\_\_\_, 「정극순의 『연녀유고』-서양화, 변상벽, 매합에 대한 이야기를 겸하여」, 『문헌과해석』36, 문헌과해석사, 2006 가을.
- 이종문, 「高麗前期의 詩僧 慧素에 관한 한 考察」, 『대동한문학』24, 대동한문학회, 2006. 6.
- 이지양, 「조선전기 성리학자의 산수 감상 특징과 그 의미-여현 장현광의 『주왕산록』(1597)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29, 한국고전문학회, 2006.
- 이지하, 「<반씨전>의 이중적 성격과 그 의미」, 『한국문화』3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12.
- 이케다 미에코, 「遺新羅使人の 노래와 그 주변」, 『열상고전연구』23, 열상고전연구회, 2006. 6.
- 이택동, 「기암 이중업론」, 『한국고전연구』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 이현창, 「박제가 경제사상의 구조와 성격(2)」, 『한국실학연구』11, 한국실학학회, 2006.
- 이혜순, 「16세기 『주자가례』 답론의 전개와 특성-가례의 문화적 수용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정신문화연구』29-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여름.
- 이홍식, 「향해 홍길주의 언어·문자관」, 『문헌과해석』36, 문헌과해석사, 2006 가을.
- 이희복, 「점필재 김종직 재평가」, 『한문학보』15, 우리한문학회, 2006.
- 임덕선, 「하당초고본 교수에 대한 연구」, 『동방한문학』31, 동방한문학회, 2006.
- 임완혁, 「송세림론-〈어면순〉의 저작배경에 대한 일고」, 『한문학보』14, 우리한문학회, 2006.
- 임종욱, 「여말선초 한시에 나타난 견제와 수용의 논리」, 『온지논총』15, 온지학회, 2006. 12.
- \_\_\_\_\_, 「추사 김정희의 불교시 연구」, 『한국어문학연구』47,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6. 8.
- \_\_\_\_\_, 「허균의 한시에 나타난 불교」, 『온지논총』14, 온지학회, 2006. 6.
- 임종혁, 「조선전기 필기의 전통과 패설」, 『대동한문학』24, 2006. 6.
- 임준성, 「禪茶一如의 詩境-매월당의 茶詩를 중심으로」, 『고시가연구』18, 한국고시가문학회, 2006. 8.
- 임준철, 「유협시의 유형적 전통과 17세기 조선시단의 유협시」, 『한문교육연구』26,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 임채명, 「조선전기 문인들의 일본국왕사 대응의 한 단면-이육의 <送日本僧聖津首座還國詩序>를 중심으로」, 『한문학 논문집』24, 근역한문학회, 2006. 11.
- 장미경, 「임란 무장의 상징화 양상」, 『열상고전연구』23, 열상고전연구회, 2006. 6.
- 장병한, 「박세당·심대운의 『중용』 해석 체계 비교-성리학적 주석체계에 대한 해체주의적 입장과 그 연계성 파악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11, 한국실학학회, 2006.
- 장영희, 「곽재우의 전과 야담의 수용양상」, 『한문학보』14, 우리한문학회, 2006.
- 장우석, 「<조생원진>의 이본고」, 『송실어문』22, 송실어문학회, 2006.
- 장유승, 「貧郊 李之龜의 생애와 한시」, 『한국한시작가연구』10, 한국한시학회, 2006. 2.

- \_\_\_\_\_, 「조선후기 서북지역 문인 집단의 성격-평안도와 함경도의 지역 정체성 차이를 중심으로」, 『진단학보』101, 진단학회, 2006. 6.
- 전일우, 「『연원직지』 연구-‘기’를 중심으로」, 『승실어문』22, 승실어문학회, 2006.
- 정길수, 「‘천기론’의 문제」, 『한국문화』37,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6.
- 정무룡, 「합천 화양동 윤씨가 세전 <기수가>의 논쟁 양상 연구」, 『한국시가연구』21, 한국시가학회, 2006.
- 정 민, 「다산과 황상」, 『문헌과해석』36, 문헌과해석사, 2006 가을.
- \_\_\_\_\_, 「이덕리 저 『동다기』의 차문화사적 자료 가치」, 『문헌과해석』36, 문헌과해석사, 2006 가을.
- 정선모, 「고려시대 소동파시문집의 수용과정에 대하여」, 『한문학보』15, 우리한문학회, 2006.
- 정성식, 「여말선초 사상적 패러다임의 전환 탐구-포은과 삼봉의 율불관을 중심으로」, 『온지논총』15, 온지학회, 2006. 12.
- 정시열, 「‘기’ 자 평어 작품에 대한 일고-『소화시평』과 『시화총림』을 대상으로」, 『한국고전연구』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 정영문, 「김성일의 『해사록』 연구」, 『승실어문』22, 승실어문학회, 2006.
- 정우락, 「서계 김담수의 전쟁체험과 그 문학적 대응」, 『영남학』10,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6. 12.
- \_\_\_\_\_, 「아버지의 묘갈명-남명의 아버지 조언형의 묘갈」, 『선비문화』10, 남명학연구원, 2006 가을.
- 정우봉, 「한국 수사학사에 있어 ‘수사’ 담론과 그 맥락」, 『민족문화연구』4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2006.
- 정은진, 「정경순의 저작과 『이신록』·『삼신록』 소개 한시 고찰」, 『한문학보』15, 우리한문학회, 2006.
- \_\_\_\_\_, 「『髯臯酬唱錄』을 통해 본 표암 강세황과 성호가의 교유 양상」, 『동양한문학연구』22, 동양한문학회, 2006. 2.
- 정일남, 「『묘향산소기』 연구」, 『동방한문학』30, 동방한문학회, 2006.
- 정일우, 「『燕輶直指』 연구」, 『온지논총』14, 온지학회, 2006. 6.
- 정재철, 「한중일 『고문진보』의 비교연구-동아시아 한문 교재의 유통 양상에 대한 일고찰」, 『한문교육연구』26,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 정환국, 「허생고사와 북벌인식의 추이」, 『한국어문학연구』47,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6. 8.
- 정후수, 「『은송당집』 출판 경위-『해린척소』 일사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24, 동양고전학회, 2006. 6.
- 정훈, 「삼의당 한시의 변모 양상 고찰」, 『한국언어문학』56, 한국언어학회, 2006. 2.
- 조경은, 「편견의 충돌과 대화 형식의 글쓰기-〈애오잠〉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 조규익, 「북한 문학과 악장」, 『온지논총』14, 온지학회, 2006. 6.
- \_\_\_\_\_, 「조선 초기 악장을 통해본 전환기의 실상」, 『온지논총』15, 온지학회, 2006. 12.
- \_\_\_\_\_, 「『박금강금강산유산록』 소고」, 『승실어문』22, 승실어문학회, 2006.
- 조동원, 「금석문의 역사와 자료적 가치」, 『대동문화연구』55,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 조상우, 「〈경성백인백색〉에 드러난 애국계몽기 시대상과 작가층」, 『민족문화사연구』30, 민족문화사학회, 2006. 4.
- 조장록, 「풍석 서유구의 삶과 행적」, 『문헌과해석』34, 문헌과해석사, 2006 봄.
- 조태성, 「法宗 虛靜의 雜體詩 小考」, 『고시가연구』17, 한국고시가학회, 2006. 2.
- 조한석, 「안정복의 삶과 생각」, 『선비문화』9, 남명학연구원, 2006. 봄.
- 조현우, 「〈天君本紀〉 연구-서사 구성 방식과 춘추필법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국제어문』37, 국제어문학회, 2006. 8.
- 주승택, 「강위의 燕行詩에 나타난 韓中 지식인의 교류양상」, 『한국문화연구』11,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6.
- 주호찬, 「여말 삼사의 오도시와 열반시」, 『어문논집』53, 민족어문학회, 2006. 4.
- \_\_\_\_\_, 「이규보의 불교인식과 불교관련시」, 『한자한문교육』16, 한자한문교육학회, 2006.
- \_\_\_\_\_, 「이규보의 시에 나타난 불교인식의 추이」, 『한문학보』14, 우리한문학회, 2006.
- 차충환, 「〈五老峰記〉 연구」, 『어문연구』34-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가을.
- 최경환, 「누정집경시의 창작 동기와 누정의 공간적 특성-죽서루·식영정·칠탄정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22, 동양한문학회, 2006. 2.
- 최석기, 「남명 시에 나타난 도학적 성향」, 『남명학연구』22, 남명학연구소, 2006. 12.
- \_\_\_\_\_, 「남명의 산수유람에 대하여-『유두류록』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원총서1, 2006.
- \_\_\_\_\_, 「연천 홍석주의 학문성향과 『대학』 해석의 특징」, 『한문학보』15, 우리한문학회, 2006.
- 최 식, 「홍길주, 천고의 벼을 사귀다」, 『문헌과해석』36, 문헌과해석사, 2006 가을.
- 최원경, 「『숙수념』에서 ‘꿈’의 작용」, 『문헌과해석』36, 문헌과해석사, 2006 가을.

- 최은주, 「선집편찬으로 본 17세기 명시 독서 경향의 실상」, 『한국한문학회』37, 한국한문학회, 2006. 6.
- 최재남, 「石門 鄭榮邦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10, 한국한시학회, 2006. 2.
- 최재목, 「이상훈, 강화양명학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정리-관련 주요 문화사적 도표, 연표를 중심으로」, 『양명학』16, 한국양명학회, 2006.
- 한명기, 「조선시대 한중 지식인의 고구려 인식」, 『한국문화』3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12.
- 한상봉, 「박지원이 찬한 묘지명-〈通德郎崔公墓誌銘并序〉·〈孺人臨淮朴氏墓誌銘并序〉」, 『문헌과해석』35, 문헌과해석사, 2006 여름.
- 한태문, 「통신사 노경에 반영된 한일 문화교류의 한 양상-일본 岡山縣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23, 열상고전연구회, 2006. 6.
- 허권수, 「근기남인학들의 남명에 대한 관심」, 『남명학연구』22, 남명학연구소, 2006. 12.
- 허동현, 「개화기 윤치호의 해외체험과 문화 수용」, 『한국문화연구』11,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6.
- 허홍식, 「고려 불교금석문의 특성과 정리방향」, 『대동문화연구』55,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 글쓰기의 양상과 ‘여성주체’의 형성과정-1908년 <대한매일신보>·<여자지남>·<자선부인회잡지>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 홍현보, 「세종 영릉신도비명의 체제에 관한 연구」, 『동양고전연구』25, 동양고전학회, 2006. 12.
- 황갑연, 「석정 이정직의 <논왕양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신문화연구』29-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여름.
- 황수연, 「조선후기 첩과 아내-은폐된 갈등과 전략적 화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 \_\_\_\_\_, 「조선후기 제문 연구-여성 대상 제문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25, 대동한문학회, 2006. 12.
- 황위주, 「한시 강좌-고시의 개념과 고시선집」, 『선비문화』9, 남명학연구원, 2006 봄.
- \_\_\_\_\_, 「한시 이야기-시경의 형성과 양식적 특징」, 『선비문화』10, 남명학연구원, 2006 가을.
- 황인진, 「<연경잡절>에 나타난 박제가의 중국 체험 고찰」, 『한국시가연구』20, 한국시가학회, 2006.
- 황재문, 「운양 김윤식 산문 연구-문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3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12.
- 황정연, 「18세기 경화사족의 금석첩 수장과 예술향유 양상-파평윤씨 윤동섬·윤동석을 중심으로」, 『문헌과해석』35, 문헌과해석사, 2006 여름.